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n.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2015 '청양의 해' 달라지는 것들

소득세 인하 반면 최저 임금 및 무보험자 벌금 인상 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청양의 해' 인 2015년 올해도 미국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법규와 제도가 새롭게 시행 혹은 강화된다. 한인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을 세법, 부동산, 일반법 등의 범주로 나누어 소개한다.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양과 활동적인 청색이 어우러진 올해도 모든 사람들의 꿈을 실현해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사추세츠 주법 최저임금 \$9로 인상

지난해 \$8이었던 매사추세츠 주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9로 인상된다. 이는 2016년에 \$10, 2017년에는 \$11로 서서히 오를 예정이다. 반면,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3로 기본임금에 팁(한달에 최소 \$20)을 더했을 때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산정의 근거다. 이 또한 2016년에는 \$3.35, 2017년에는 \$3.75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 소득세 5.15%로 인하

지난해 5.2%였던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가 올해 5.15%로 인하된다. 매사추세츠 주 유권자들은 지난 2000년

5.95%였던 소득세를 5%까지 낮추는 정책에 찬성하며 점차적으로 소득세는 줄이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주지사 드벌 패트릭은 주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예산 격차를 점차 줄이기 위한 이목이 주지사 임기를 시작할 찰리 베이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핸즈프리 주유 가능

기름이 잘 때까지 주유 기구의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것은 추운 겨울에 더욱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주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손잡이에 클립을 설치, 프리핸즈 주유를 가능케 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자동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클립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유일한 주였지만 올해부터는 주유 시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으며 한겨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관련 법

매사추세츠 주는 자동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클립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유일한 주였지만 올해부터는 주유 시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으며 한겨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오바마케어 등록 한인들 어려움 겪어

헬스케어, 보험신청 문항 번역 제안에 "의논해보겠다"

1차 접수 마감, 2차 접수 1월 23일까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바마케어의 1차 공개등록기간이 마감되고 2월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매사추세츠 주민 27만여명이 보험을 신청했지만 한인들은 여전히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1차 등록 시한을 넘겨 2월 1일부터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김보희(가명) 씨는 "모든 정부혜택을 받는 것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오바마케어 신청에 어렵잡아 2-4시간은 오롯이 쏟아야 했다"며 보험신청이 만만한 과정이 아님을 설명했다.

23일 이전에 겨우 신청절차를 마친 정 씨는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신청 문항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전했다. "한국어로 표기되었더라면 전혀 어렵지 않았을텐데 일반적인 영어표현으로 헷갈리게 되어있는 것 같다"는 것이 정

▶▶3면으로 계속



진양 헬스케어 대표

- 최저임금 \$9로 인상
- 주 소득세 5.15%로 인하
- 핸즈프리 주유 가능
- 주택 구입시 다운페이먼트 3%
- J비자 규정강화
- 해외거주자 주민등록증 발급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www.japantravelinfo.com

Since 1970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STAR Realty of Boston
NEWS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NH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원만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2013년, 2014년 연속 2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전체 1위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부동산 관련법, 첫 주택구입자 및 저소득층 구입자에게 유리

▶▶1면에 이어서

문자 의무보관 규정 폐지

부동산 거래 시 문자(Text)나 한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자주 사용된다. 기존에는 거래 관련 문자는 서류보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어 왔지만 2015년부터 문자는 보관대상에서 빠진다. 이메일은 현재 명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만일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문자나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류이전세 기입 필수

한편, 1월 1일부터 서류이전세(Document Transfer Tax)가 공개되면서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도 매매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모든 바이어는 카운티에 제출하는 매매관련 자료에 서류 이전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건물 매매가를 역으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운페이먼트 3%

첫 주택 구입자 및 저소득층 구입자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프레디맥(Freddie Mac)과 패니매(Fannie Mae) 두 기관이 기존의 5%보다 낮은 3% 다운페이먼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모기지 상품이 출시됨으로써 크레딧 기록은 양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현금자산이 충분치 못한 구입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패니매의 새 규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프레디맥은 올해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방법

세법 및 오바마케어 관련 법

2015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온 항목(인적 공제(exemption),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 최저한세(ATM) 기준액 등)외에는 세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벌금이 2014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2014년도에는 소득금액 1%와 1인당 \$95(미성년자인 경우 \$47.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과세했으나 올해는 소득금액의 2%와 1인당 \$325(미성년자 \$162.50) 중 큰 금액을 내는 것으로 바뀌며 벌금이 대폭 상승한다.

2016년에는 소득금액의 2.5%와 1인당 \$695(미성년자 \$347.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로써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매사추세츠 주 헬스케어의 공개가입기간에 반드시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국세청(IRS)은 1월 20일부터 2014년도분 세금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명령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

정명령을 발표해 약 49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혜택 대상자는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아이를 둔 이민자로 전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 보호를 제공받으며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스톤 이민변호사들은 6월이나 되어야 구체적인 실행요약이 드러날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기행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일렷다.

J비자 규정강화

비교적 수월하게 발급되던 J비자(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발급규정이 1월 5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테러 예방책의 일환으로 변경된 이번 규제는 영어 능력, 부양자(J2) 관리, 재정 지원, 건강보험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J비자 신청서에 토플과 같은 공인된 영어 성적표나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영어실력을 검증해야 한다. 부양자(J2)에 대한 이메일 주소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재정 보증 한도 또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 15일부터는 J1비자 소지자들의 건강보험 한도액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J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 등의 인재와 지식 및 기술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발급되

는 비자로 실습훈련 과정의 연수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방문 교수와 학자 등의 국제 방문자가 이에 포함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 필수

OSHA(직업안전건강행정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병원입원을 초래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주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이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세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 보고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한 명이라도 입원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보고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고용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내법

해외거주자 주민등록증 발급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1월 22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명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인감증명법이 마련됨에 따라 해외 거주자도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드라 림, 한인 2세 시인으로 푸시카트 문학상, 버나드 여성 시인상 수상

“시는 열정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소설도 좋고 시도 좋아요. 다만 늘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해요. 시라는 게 항상 쉽게 써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무언가를 읽는 것으로 시상이 떠오르곤 하죠.”

시집 ‘야생(Wilderness)’의 저자 산드라 림의 말이다. 현재 로웰 매사추세츠 주립대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인 림 씨는 푸시카트 문학상 2015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 후보에 몇 차례나 오르기도 했지만 실제로 수상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시카트 문학상을 받은 시(A Tab of Iron on the Tongue)는 그녀의 시집 ‘야생’이 출간된 이후에 쓴 가장 최근 작품들 중 하나로 전혀 기대치 못했던 선물을 받았다고 림 씨는 전했다. 연이어 “깜짝 놀랐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013년 버나드 여성 시인상을 받은 ‘야생’은 말 그대로 황무지, 길들여지지 않은 공간, 혼란 등의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시의 테마나 화자의 어조가 다소 산만하고 일관성 없게 쓰여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 문학가는 이 시집에 대해 “영감(inspiration)의 집합체”라는 찬사를 보냈다.

림 씨는 늘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어릴 적부터 소



로웰 매사추세츠 주립대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야생의 저자 산드라 림

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대학교 때 처음 진지하게 접한 시의 세계는 특별한 매력으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시는 열정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림 씨는 현재 사랑과 그의 결과물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3살 때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온 림 씨는 한국에 대한 많은 기억이 없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늘 그곳을 생각하고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그녀는 “머지않아 한국 땅을 방문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전했다.

산드라 림씨는 지난 12월 14일과 21일 콩코드 도서관과 브룩라인 공공도서관에서 시낭송 행사를 가졌다. 현재 캠브리지에 거주하는 림 씨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야생’, ‘사랑스러운 기괴함(Loveliest Grotesque)’ 등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웹사이트 보험신청 3~4시간 걸려 한인들 '불편'

▶▶1면에 이어서
씨의 말이다.

실제로 보험을 영문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겪는 한인들은 상당하다. 미국 생활에 꽤 익숙한 사람들조차 때로는 상당히 주의 깊게 신청문항을 읽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다.

헬스커넥터는 보험신청을 돕는 카운셀러(Certified Application Counselor)나 지역 네비게이터, 콜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운셀러나 네비게이터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콜센터(877-623-6765)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각종 보조서류를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전화 너머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스톤코리아는 헬스커넥터의 미디어 디렉터인 제이슨 레퍼츠에게 웹사이트 신청 문항의 한글 번역을 제안했다. 레퍼츠 디렉터는 “위원회와 상의해 보겠다”며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보험 신청은 헬스커넥터 웹사이트(www.mahealthconnector.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학생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종이 신청서를 문의할 수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부족하다고 판정될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숙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희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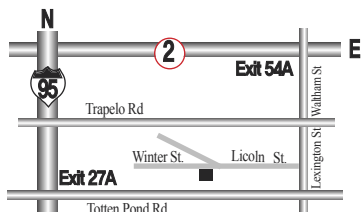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시민협회 정치 인턴십 장학생 모집

매사추세츠 정치인 사무실서
인턴 기회, 31일 접수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사장 김성군)가 정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정치 인턴십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여름 동안 정치인 사무실 혹은 정부기관에서 6주에서 8주 가량 인턴십을 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2,000, 고등학생에게는 \$500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관심 있는 학생은 1월 31일 토요일까지 시민협회 인턴십 담당자(임균택 사무차장, kyuntaek001@gmail.com)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에는 개별적으로 선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청서는 시민협회 웹사이트(www.kacl-ne.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작년 인턴으로는 보스톤 칼리지 로스쿨의 김승진(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 사무실), 코넬대학교의 박솔(매사추세츠 주지사 사무실), 피츠버그 대학교의 티모티 정(트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 학생이 있었으며 주니어 인턴으로는 노블앤그리노우 고등학교의 에스더 최, 앤도버 고등학교의 베아트리스 추, 웨스트보로 고등학교의 마이클 영 학생이 트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마쳤다.

한편, 인턴십을 후원하기 위한 '정치인턴 장학사업'을 위한 모금 만찬이 4월 18일 토요일 렉싱턴 소재 렉싱턴 엘크스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이경해 회장(508-962-2989)이나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 임균택 사무차장(857-207-7711)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4년 여름 르랜드 청 Leland Cheung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캠페인을 도왔던 시민협회 고교생 정치인턴들



2014년 여름 르랜드 청 Leland Cheung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캠페인을 도왔던 시민협회 고교생 정치인턴들

황정민 주연 <국제시장> 무료 티켓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황정민 주연의 <국제시장>이 1월 9일 금요일 보스톤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해 무료 영화티켓을 총 7명의 독자에게 2장씩 증정기로 했다.

<국제시장>으로 사행시를 지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아래 댓글로 남기면 재치 있거나 설득력 있는 댓글 7개를 편집진에서 선정해 추후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벤트 마감은 1월 7일 수요일까지며 영화 상영 장소는 AMC 버링턴 지점 (20 South Ave, Burlington, MA 01803)이다.

<국제시장>은 현재 미주 40여개 극장에서 동시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미주 최고 흥행을 기록한 <명량>의 1차 개봉규모보다 크다.

영화 <국제시장>은 영화 평론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지웅의 "토 나온다"는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다. 아버지 시대의 향수에 대한 발언으로 한층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번 개봉작은 현재 한국에서 6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국제시장>은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라미란이 출연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가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이동문 회장)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학생, 특수 예체능계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총 4명을 선발해 \$1,000씩 수여할 예정이다. 접수는 1월 31일까지 우편(Kilza Lee, M.D, 61 Heritage Road, Seekonk, MA 02771)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인회 웹사이트(www.riko-rean.org)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 각 1매를 첨부하여 보내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장학금 수여식은 로드아일랜드 삼일절 행사 때 진행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본 시상식에 참석해야 한다. 행사 일정은 웹사이트

를 참조하면 된다. 본 장학사업은 이길자, 정정욱 전임 회장 내외와 작년 10월에 열린 장학금 모금 음악회 등을 통해 후원된다. 장학금 신청 문의는 이길자(401-339-2400) 혹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사무국(info@rikorean.org)에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I 2015 신년사



엄성준
주보스턴 총영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뉴잉글랜드 한인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엔 두루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묵은 해의 안 좋았던 기억들은 훌훌 털어 내시고 새롭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3일은 제가 주 보스턴 총영사로 부임한 지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바쁘면서도 보람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변화와 창조” 였습니다. 발전을 하려면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경제 마인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을 우리 말로는 혁신이라고 번역하는데, 혁신은 쉽게 말하면 자기 발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는 것도 새로운 발전을 위해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스턴을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변화와 창조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계획으로 두 가지 큰 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해에도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단합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인단체 대표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인사회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도와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뉴잉글랜드 지역과 한국과의 정치와 경제, 학술, 문화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치면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경제면에서는 창조와 혁신경제를 통하여 비즈니스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술면에서는 대학들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며, 문화 면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세계 최고의 교육 기관들이 모여 있는 영향력이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여러분들은 미국 내 한인사회를 주도할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뉴잉글랜드 한인사회가 단합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가 잘 되어야 우리의 자녀가 미국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 세대에서 서로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선우
38대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38대 보스턴 한인 회장으로 지난 2년간 열성과 정성을 다한 봉사들을 마치며 아직 39대 한인회를 구성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새로운 한인회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출범과 더불어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장단과 이사님들의 노력과 보스턴 교민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정회원 1,000명 시대’를 달성하느라 많은 곳을 방문했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보스턴 총영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분들이 무관심하시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많은 한인분들의 공통점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한인회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관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잠재력도 크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한인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대표 기관인 보스턴 한인회는 이곳의 다른 민족대표 단체에 비해 많이 열악하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인회는 항상 어려웠다’는 말은 한인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인회는 직능단체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보스턴 지역사회에 한인들의 목소리와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우리가 만들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를 위한 우리들의 대표 단체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느낀 점은 우리가 교류하길 원하는 미국의 주류사회도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한인 대표기관을 찾고 있다는 것 입니다.

모든 한인분들이 바라는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발전
▶▶ 6면으로 계속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I 2015 신년사

은 우리들의 말과 생각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한인사회에 대한 무관심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할 때이고 꼭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불경기 속에 많은 한인분들이 어려움 속에 수고하셨습니다. 다같이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찬 2015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나가는 해는 항상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격동의 꼬리를 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역시 중요하고 의미있는 삶의 족적을 남겼으리라 믿어봅니다.

이곳 미국사회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높이려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본 한인회의 노력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한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본 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회는 17년전에 창립되었습니다. 친선도모를 통한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고조 등의 포괄적인 발전을 설립취지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만족스러운 효과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한인회의 공적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간 헌신해 주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본 한인회도 신년을 맞이하여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과 동참

을 바랍니다. 각자가 품고 온 그 '꿈'을 실현하여 이민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포들도 많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작은 나눔이 더 큰 빛을 발휘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함께 한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어 주류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숨은 능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봉사정신과 참여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한인회입니다. 참여하여 화합으로 발전하는 한인회, 기필코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조국이 선진국으로 도약되고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해외동포들이 가진 우수한 역량을 집결하고 그 추진의지를 다진다면 통일된 선진조국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주역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양의 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보다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길 염원해 보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는 우리 한인 모두가 좋은 일 굿은 일 가리지 않고 더욱 함께 나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밝아 온 2015년!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창조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도 여러가지 여건 등이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희망과 꿈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입니다. 양의 특징적인 장점으로 온화, 친절, 이해심, 평화, 진실, 관대함, 적응력, 품위, 창조적 그리고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처럼 우리 모두가 이처럼 되기 위하여 노력해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혼자서 꾸면 꿈이지만 함께 꿈을 키워간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모두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함께 모아 2015년을 함께 나아갑시다. 특히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올 한해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밝은 빛이 비추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보스톤코리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을미년의 새해 아침에 인사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면서 2014년의 다사다난했던 기억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떠오릅니다. 그로 인해 마음고생이 그 어느 해보다 컸던 시간들이 많았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Happiness shared returns many-fold, sadness shared comes back halved)말과 같이 새해



유영심
보스톤한미노인회 회장

보스톤 한인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잊그제 2014년 한해의 시작에 희망을 가지고 벽찬 가슴으로 출발할것 같았는데, 2015년이 벌써 돌아왔군요. 한해를 보내면서 뒤돌아 볼 때에 구진 일 가슴 아픈 일,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무사히 보내고 즐겁고 보람된 일도 있었으며 또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을미년의 새 날들로 새 희망 새 계획으로 새해 을미년을 맞아 다시 시작 할 수 있도록 새 시간 새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보스톤 한미노인회를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도와주신 한인 동포들, 한인 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신 보스톤 한미노인회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후원이사님들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I 2015 신년사

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열심히 노인회에 참석해 주신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원님, 임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 노인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접하시고 섬기며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부탁 드립니다. 모든 것에 미숙하고 부족하여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훌훌 다 털어 버리고 다시 시작할 노인회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스톤 한미노인회를 더 잘할 수 있는 의견, 방안,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권면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장이 된 것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나이들기 전에 건강을 주셔서 봉사하라고 주신 사명임으로 감사드리며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내 아집과 고집, 내 의견대로 하지 않고 노인 어른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그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려 봅니다.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할 수 없으므로 꾸준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 가지 계획과 포부를 안고 다시 올미년을 시작해 보렵니다. 새해에는 받은 축복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성경은 2015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베소서 5장 15,16절)

보스톤과 뉴잉글랜드의 한인들 모두 건강하고 다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모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이번 새해에는 마음을 열고 진정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기점으로 비약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2015년 새해를 시작하기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20년, 40년, 50년도 아닌 70년이 가까운 이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의 비극을 하루 속히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창조적인 미래를 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통일대박의 화두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독일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서 통일 후에 세계 제일의 경제화와 선도적인 민주 복지사회의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통일 현실에 대하여도 최근 많은 검증된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 골드만 삭스가 내 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조만간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된 한국은 중국, 일본 등을 앞서는 선두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학생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우수성을 보며 자주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한가지 분명한 점은 이들이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현상이 남한이라는 좁은 지역만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실천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뉴잉글랜드 교민 여러분께 올미년을 맞이해서 인사 드

평이 가득하시고 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을 회고해 보면 아직도 침체된 미국 경제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또 시민협회는 나름대로 꾸준한 활동으로 정치인턴과 정치후보자 모금행사, 제 2회 차세대포럼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정치인턴 모금만찬은 성황리에 끝났고 특히 올해는 대학생 3명, 고등학생 5명으로서 가장 많은 인턴들을 패트릭 도지사, 워렌 상의원, 캠프리지 시의원 청 사무실에 배치했으며 모두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끝내었습니다.


특히 르랜드 청 시의원은 부도지사 후보로서 시민협회에서 지난 6월에 선거자금 모금행사를 주최했고, 시민협회 5명 인턴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패배의 잔을 마시게 되었지만 첫 동양인 입후보자였다는 것과 우리 인턴들의 맹활약에 대해 정말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버드 법대에서 거행되었던 제 2회 차세대 포럼 또한 성공적인 행사였고 100명 정도의 젊은 세대가 모여서 6명의 저명 연사들과 진지한 토의에 열중하는 모습은 정말 감명스럽고 시민협회가 이 차세대들을 위한 지침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저희 시민협회는 계속해서 정치인턴 모금만찬 (4/18/15),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 (8월 말), 차세대 포럼(10월 말) 등의 행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 해입니다. 시민협회의 미션인 교민들의 권익향상과 적극적인 정치적 협조와 선거참여운동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성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회장


2015년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유난히 기쁜 소식도 많이 있었지만 가슴 먹먹한 슬픈 소식들도 많이 겪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격변 중에 귀중한 교훈이 있었다면 한 순간도 우리가 헛되어 쓰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조물주에 의해 시간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의미있게 움직인다는 의식은 분단의 조국을 운명적으로 지고 가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중요한 생의 기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경해
한인 시민협회 회장


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도 어느덧 지나갔고 또 다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2015년을 맞이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정에 소망과 화



한순용
재미 한국학교 NE 협의회회장

▶▶ 8면으로 계속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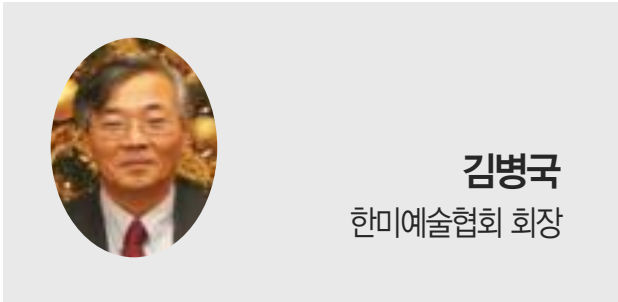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I 2015 신년사

올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면서 힘들었음을 짐들은 잠시 내려놓고 꿈과 희망을 담아 2015 올미년에 새로운 계획을 새우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설레어 봅니다.
 새해에는 수많은 꿈을 꾸며 각자의 삶에 맞추어 크고 작은 알차고 보람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더욱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재미한국학교 NE 협의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시지 않은 여러 단체장님들께 저희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미년 새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재미한국학교 NE 협의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하고 저희들의 꿈나무인 2세들의 한글과 문화, 역사 교육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저희 협의회 회원학교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미년 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깜짝 놀랄만한 획기적인 즐거움이나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 등 원이 없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한해 동안의 수많은 감정들: 슬픔, 괴로움, 즐거움, 행복함 등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친구의 부드러운 격려, 아이의 말 한마디, 가족이나 친구의 타계 등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 등을 되돌아 보며 기억의 한 부분에 조용히 내려 놓고 새해에도 열심히 한해를 살아가갈 때에 예술은 우리 내면의 감정을 승화해주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로 우리의 옆에 존재합니다.
 괴테는 “인간은 항상 적어도 하나의 작은 노래를 듣고, 좋은 시를 읽으며,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유용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보스턴 교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출입구의 원을 지우는 깜짝 놀랄만한 즐거운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함께 하나의 작은 노래를 듣고 좋은 시를 읽는 것에 이바지하는 예술협회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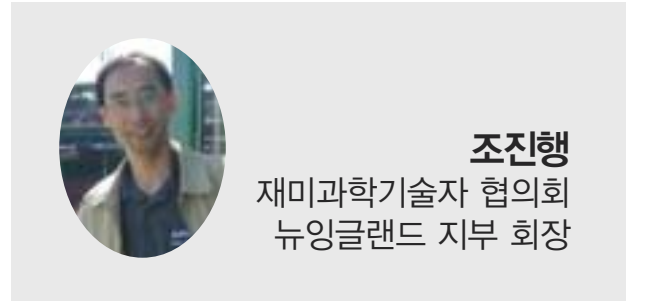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어려워니 교민사회 또한 어려움이 있었고 테러로 인한 공포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 서양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돌아간 북한의 김정일이 북한 정권을 잡을 때 우리 모두가 바라던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더욱 심한 굶주림과 핍박, 인권이 무너지게 되었고金正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저버리는 악행으로 고모부를 처형하며 그를 따르던 무리들 까지 줄줄이 처형하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국제사회가 경악했습니다. UN의 북한 인권 법이 통과되고 모국 내에서는 진보라는 용어를 독차지 한 종북 세력들이 북한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다가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할 정당해산이라는 불명예의 역사를 만들며 남남 갈등을 조장, 국민 단합을 해치므로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없던 한 해였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사회가 화합되고 사회가 화합하며 안정되어야 국가가 부흥할 수 있으니 희망찬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의 가정이 축복 받아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민 모두는 모국의 안보를 걱정하며 자신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염원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

얼마 전에 누군가 제게 던진 수수께끼입니다. 출입구 앞, 뒤로 큰 원이 있고 그곳에는 건장한 사람이 방망이를 들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마구 때립니다. 어떻게 하면, 방망이를 맞지 않고 출입구를 왔다갔다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을 지우면 된다’ 입니다. 이와 비슷한 수수께끼나 질문에 대한 답의 공통점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생각하라는 것일 듯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쳇바퀴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의

뉴잉글랜드에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하였던 2014년의 바람과 계획에 아쉬움은 있겠으나 잘 마무리 되었으리라 믿으며 60갑자 중 한해가 되는 올미년(乙未年)을 맞이하며 각 개인과 가정에 좋은 계획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乙”의 의미는 푸르름을 말하는 청을 의미하니 올하는 청양의 해 입니다. “羊”은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양피의 사람은 이해심과 화합심이 강하다고 하니 올미년을 맞는 우리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민사회를 포함하여 모국의 국민들도 냉정한 지혜와 부드러움과 이해심으로 화합의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켜보면 2014년은 다사다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진행
재미과학기술자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뉴잉글랜드 지역 모든 한인 가정에 소망한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1년에 설립된 재미 과학기술자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부는 경력 개발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행사를 통해서 지역 과학 기술인들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회원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하는 수학 경시대회를 지역 한인 자녀들에게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9면으로 계속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I 2015 신년사

올해로 3기를 맞게 되는 창조경제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저희 과기협 NE지부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학 경시 대회뿐만 아니라 지역 한인 대학 및 대학원 학생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한인 자녀분들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甲午년인 지난해 한국 사회의 주요 단어로 甲과 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乙未년을 맞아 甲의 위치에 있던 분들은 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乙의 위치에 있던 분들은 그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윤희경
보스턴봉사회 회장

을미년,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교민들께서 보스턴봉사회를 향시 찾아 주시어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던 한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성심껏 노력은 하였으나, 미흡한 점 있을 줄 압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을 드리는 기회를 통하여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직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오바마케어를 검토하십시오. 양질의 보험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오는 2월 15일은 2015년도 보험가입 마감일입니다. 일부 한인사회에 떠도는 헛소문 등으로 인해서 가입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달간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에 6백4십만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들처럼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라 세금보고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세금보고를 통하여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액수, 혹은 보험이 없는 경우의 벌금 액수가 최종적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법상 세금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권합니다.

오바마케어를 구매하였으면, Form 1095-A라는 세금보고 양식이 우송됩니다. FORM MA 1099-HC는 오바마케어 외의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발부됩니다. 세금보고에 꼭 필요합니다.

2015년에도 교민들의 건강보험 안내와 세금보고 서비스를 계속할 것입니다. 몇 교민들의 요청으로 시작한 시민권신청 업무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면, 도울 것입니다. 금년도 가장 큰 사업은 봉사회 자체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과 운영입니다. 사이트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더 자세히 항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서류 작성을 위한 동영상과 초보자를 위한 태블릿(아이패드)과 스마트폰(아이폰) 작동법에 대한 동영상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봉사회는 연방정부의 인허를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상정보의 비밀 보장과 무사 공정을 항상 지켜 갈 것을 약속합니다. 새해에도 이민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슴치 마시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인
보스턴한인합창단 단장
화음보스톤챔버 대표

뉴잉글랜드의 우리 한인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각 가정의 소중한 꿈이 차근차근 이뤄져나가는 보람있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NE한인 커뮤니티에 따뜻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새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지나간 2014년이 소중한 열정적인 시간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 참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먼 훗날 돌아볼 때 아름다움으로 남을 가치있는 시간들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눈 뜻 깊은 음악회의 매 순간마다 헌신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지휘자, 단원들, 후원 이사회, 지인들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기에 더욱 감사함이 커집니다.

역학으로 본 2015년, 양미해의 전망

양(羊)의 글자 모양을 파자하면 아름다움(美), 착함(善)의 뜻과 통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양은 성질이 온순한 초식동물입니다. 무리끼리 싸우지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을미(乙未)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동안 쌓였던 타하고 나쁜 기운은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양(羊)은 음(陰)과 여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므로 2015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유리한 해로 여성과 위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12지의 어느 동물보다도 종교와 인연이 깊고 사색가인 양(羊)의 영향으로 신앙인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2015년은 가뭄이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무더위만 지속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속출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세계 도처에 지진 및 태풍, 홍수 등 기상기변이 속출할 것입니다. 건강은 호흡기, 기관지, 신장, 피부질환, 우울증, 정신불안, 소화기, 신경성위장, 심인성 질환에 조심해야 하는 해입니다. 유망업종은 건강식품, 정보통신, 문화사업,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 하이테크, 영화산업 분야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첨단 산업, 유전공학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한인사회와 함께한 첫 성탄음악회로 따뜻한 음악과 사랑을 나누는 보스턴한인합창단과 보스톤과 로도아일랜드에서 젊은 한인음악인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널리 선사한 화음보스톤챔버는 열정과 꿈을 새롭게 펼칠 2015년 새해를 맞아 뜻 깊은 기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국의 해방 70주년, 그와 더불어 안겨진 한반도 분단의 아픔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름다운 한민족'이라는 주제의 삼일절 문화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한반도 시리즈 콘서트'를 통해 우리 한민족의 스토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음악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그 아름다운 미래를 화음으로 그려 나가겠습니다.

한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나눌 때 힘든 이 민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조국애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마음 되는 감동의 음악을 선사하는 새해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열렬한 성원과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카지노 ATM 설치, 카지노와 같은 층 안돼

매사추세츠 의회 카지노 ATM 설치법 논의 일부에서는 ATM 카지노 설치 자체 반대



카지노에 ATM을 설치하는 문제를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논의 중이다. 사진과 달리 다른 층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하면 잠시라도 도박 위험에 대한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새로 건설될 예정인 카지노에서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automated teller machines)의 설치 장소를 놓고 주 의회가 논의 중이다.

보스턴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브루어 상원의원이 카지노 부지 내에 AT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게임을 하고 있는 층에는 ATM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카지노 리조트 내에 어떤 곳이든지 ATM을 설치할 수 있지만 카지노 테이블이나 슬롯 머신이 있는 건물의 같은 층에는 ATM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브루어 의원은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면서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TM이 다른 층에 있으면 현금을 찾기 위해 걸으면서 잠시나마 계속해서 돈을 잃

을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루어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는 도박 게임에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카지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카지노 리조트 내에 ATM 설치를 전면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은행의 ATM은 카지노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연방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은행만이 카지노에 ATM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 그 동안 카지노가 없었고 새로 생기는 과정이

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지노 면허를 허가해주는 게이밍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지노 건물에 ATM을 설치할 수 있지만 게임 장소에서 적어도 15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ATM 설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할 예정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에버렛과 스프링필드의 카지노 건설이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이고, 플레인필드에 슬롯 머신 게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퇴임 앞둔 패트릭 주지사 막바지 공직자 150명 임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퇴임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150명에 달하는 인사를 임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는 패트릭 주지사가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을 퇴임 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

패트릭 주지사는 수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 주 정부 내에 수백 개의 공직이 공석인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패트릭 주지사가 임명한 직위는 자동차 배기 가스관리부터 카지노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까지 주 정부 행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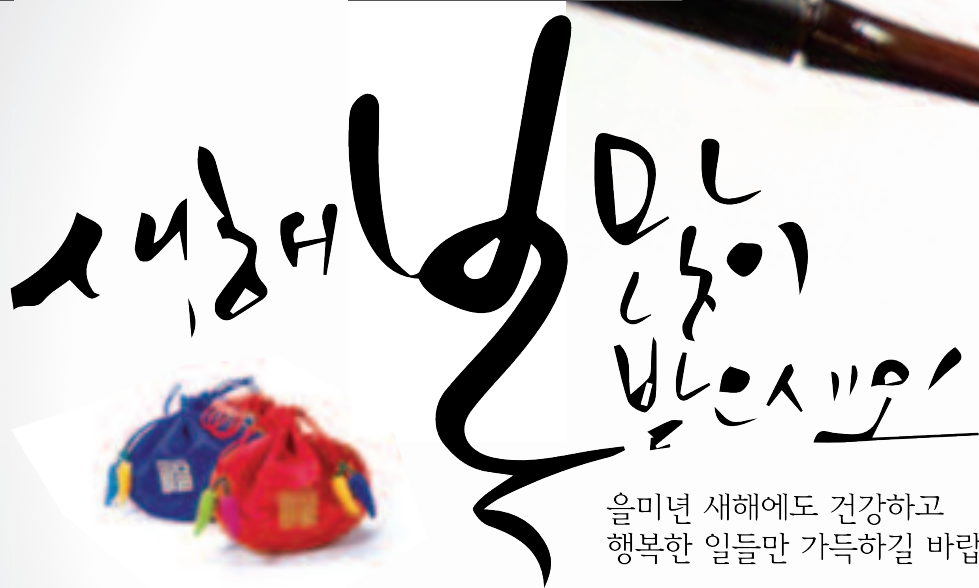
패트릭 주지사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것이다. 다만 패트릭 주지사가 퇴임 직전에 임명한 직위는 대부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직이다.

일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1991-1997)의 인사 행정을 도왔던 하버드 대학교의 마티 린 스카이 교수는 패트릭 주지사의 이번 인사 조치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재임 기간 동안 행정부의 일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자리가 없었던 이들을 위한 배려” 라고 설명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2003-2007) 역시 퇴임 막바지에 200명 이상의 공화당 인사들을 주 정부에 배치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선출된 찰리 베이커 당선자는 오는 1월 8일에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취임한다. 베이커 당선자는 패트릭 주지사가 마지막 15일 동안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올미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보스턴 유일의 홍삼 전문매장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H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1~2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FREE GIFT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FREE

2014년 보스턴 살인 늘고 다른 범죄 줄어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도체스터, 매타팬, 락스베리에 집중



보스턴은 지난해 초 갱단의 전쟁으로 살인 건수가 급증했다. 이후 총기구입 프로그램으로 상당수 성과를 거뒀지만 2013년에 비해 급증한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의 살인 범죄가 지난 4년간의 하향곡선을 접고 27%나 상승했다.

지난 12월 28일까지 보스턴에서는 총 52명이 사망해 지난해 41명 사망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이 같은 사망사건은 대부분이 도체스터, 매타팬 그리고 락스베리 등 흑인 밀집지역에서 일어났다.

한가지 긍정적인 면은 시 전체의 총기 사건이 250건에서 213건으로 15% 줄었다는 것이다. 살인, 강간, 강간미수, 강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6% 줄었고 도둑, 자동차 절도 등도 4% 떨어졌다.

가장 살인이 많았던 해는 지난 2010년으로 총 73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2000년 불과 39건에 불과하던 살인사건이 두배 넘게 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급격히 감소해 왔었다.

제임스 앨런 파스 노스이스턴 범죄심리학 교수는 기타 범죄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한 이유로 감시 카메라의 증가와 실시간 통계 사용, 총격을 감지하는 테크놀로지 발달, 그리고 범죄자들의 강력한 수감 정책 등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파스 교수는 현재 수년 전보다 훨씬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시카고, 뉴욕, LA 등지의 살인 사건도 상당수 감소했다.

지난 12월 21일 기준으로 시카고는 지난해 408에서 392로, 뉴욕은 334에서 321로, 그리고 LA는 254에서 250로 각각 줄었다.

보스턴은 올해 들어 살인사건이 늘어난 이유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갱단체들의 전쟁으로 사망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후 보스턴 경찰은 총기 구입 프로그램을 통해 총기를 수거하고 강력하게 총기규제를 실시했다. 보스턴 경찰은 총기 구입프로그램을 통해 총 1,053정의 총기를 구입, 수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집중 발생한 락스베리, 매타팬, 도체스터에 자전거 순찰을 늘리고 청소년 들 스포츠 및 학교 프로그램을 증대시켰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커피 타임도 갖는 등

커뮤니티 밀착형 순찰 프로그램으로 범죄 증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었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법대 성범죄 정책 변경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법대의 성범죄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하버드 법대는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지난 2012-2013년까지의 성범죄 신고를 재검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발적인 개정 동의안에 따르면 하버드 법대는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성범죄 고소권리와 방법, 그리고 추후 성범죄 형사소송이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러한 고소접수 건을 미교육부 인권 사무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 교육부는 하버드 법대의 성범죄 처리 정책을 조사한 결과 두 학생의 성희롱 고소 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으며 연방정부의 성차별 금지 및 연방 교육지원금 삭감을 규정하는 타이틀 9항 위반으로 규정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성범죄 고

소 케이스의 경우 이를 처리하는데 무려 1년이나 소요했으며 과정에서 신고학생은 전혀 참여를 배제했다.

하버드 대학 앨빈 파월 대변인은 이번 성명서를 법대 웹사이트에 고시했으며 이미 하버드 대학 내에서도 성범죄 대응 관련 상당한 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교육부는 지난 5월 하버드 법대와 하버드 대학 학부가 성범죄 고소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연방정부의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55개 대학에 포함됐음을 밝히고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대의 자발적 성범죄 조항 개정 동의안은 현재 타이틀 9항 위반으로 조사 중인 하버드 대학 학부의 성범죄 처리 정책 건과는 별도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hsb@bostonkorea.com

버몬트 양키 원자력 발전소 완전 폐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몬트 양키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 12월 29일 오후 1:04분에 완전히 폐쇄됐다.

버몬트 양키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감속 운행해왔으며 주변 지역의 전기 공급도 점차로 줄어왔었다. 29일 아침 폐쇄직전 이 원전은 74%의 용량으로만 운행했으며 몇 시간에 걸쳐 완전히 운행을 정지시켰다.

이 원전은 지난 2010년 버몬트 의원들이 폐쇄노력을 기울이면서 점차 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비록 양키 원전은 2032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운행 허가를 보유한 상태였지만 지난 2013년 재정적인 이유로 폐

쇄방침을 발표했다.

양키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 엔터지의 중역 배릿 그린 씨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원전운영의 비용부담을 과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린은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해 천연가스의 가격이 낮아져 미국내 에너지 장기적 하부구조 전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 밝혔다.

양키 원전의 폐쇄로 남은 원전은 커네티컷 워터포드 소재 마일스톤 2, 3호기,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위치한 필그림 원전, 그리고 뉴햄프셔 씨브룩에 위치한 씨브룩 원전 4기이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9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ACTON	NATICK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지난 24일 하와이에서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오른쪽)와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오바마 대통령 골프로 식당 바꾼 신혼부부

뒤늦게 사실 안
오바마 대통령 사과전화
신혼부부 최고의 날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독한 골프사랑으로 신혼부부가 결혼식장을 서둘러 변경하는 일이 벌어졌다. AFP통신은 하와이 해병대 기지 안에 있는 카네오헤 클럽과 골프클럽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나탈리 헤이밀 대위와 에드워드 말루 대위가 대통령의 골프 약속으로 급히 식당을 바꿨다고 29일 보도했다. 결혼식 하루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골프 약속이 자신의 결혼식 일정과 겹친다는 것을 전해들은 이들은 사령관의 배려로 결국 같은 해병대 기지 안에 있는 사령관 숙소 앞마

당으로 식당을 옮겨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예비부부에 결혼 축하 겸 장소변경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다행히 신혼부부를 비롯한 하객들이 전화 한 통으로 화색을 되찾았다. 헤이밀의 여동생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이 방금 언니와 형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밝히며 "매우 놀라운 일"이라 말했다. 신부 측 하객인 베카 드라이어도 "대통령이 신혼부부에게 최고의 날을 만들어 줬다"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골프광으로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9일간의 휴가에서 무려 6번 골프를 쳤다. 오바마는 1월 4일까지 16일간의 성탄 신년휴가를 고향인 하와이에서 보내는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가 하와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greenaomi@news1.kr

LA총영사관 '한국법 가이드' 출간·배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한국법 가이드'를 출간했다.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는 그동안 한국 상속법과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이 가이드북을 미국 전역의 재외공관 민원실과 한인회관, 한인업소, 은행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웹사이트(usa-losangeles.mofa.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KKK 연루 다른 미 정치인 나오나

듀크, 공화당 '스캘리스 희생양' 삼으면 다른 정치인들 거론' 협박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하원 공화당 '3인자'인 스티브 스캘리스(루이지애나) 원내총무가 12년 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쿠클럭스클랜) 행사에서 연설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KKK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과거 KKK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듀크는 이날 '퓨전', '로 스토리' 등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스캘리스 원내총무를 둘러싼 논란을 비판하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정치인의 이름도 차례로 거론하겠다고 경고했다.

듀크는 2002년 자신이 마련한 KKK 행사에 당시 루이지애나 주 하원의원이던 스캘리스 원내총무를 연사로 초청한 인물이다.

듀크는 "만약 스캘리스 원내총무가 이번 논란으로 인해 희생되면, 특히 공화당원들이 그를 희생양으로 삼길 원한다면 상당수(공화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주변을

잘 돌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스캘리스 원내총무만 표적이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스캘리스 원내총무는 당시 유권자들에게 세금 이슈 등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다. 지금의 이 모든 논란은 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듀크는 자신이 그동안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과 어울려 왔다는 점도 내비쳤다.

현재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즉각 스캘리스 원내총무를 엄호하며 사태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적지 않은데다 인권단체 등에서 스캘리스 원내총무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 정가 일각에선 스캘리스 원내총무 사퇴, 듀크의 다른 정치인 명단 공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sims@yna.co.kr



스티브 스캘리스 공화당 원내총무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엔티비(A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 Demand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월가가 내년에도 미국 경제를 낙관하는 5가지 이유

NPR 내년 경제 낙관
국내총생산 증가는 물론
고용시장 개선 전망도 좋아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저유가란 돌발 변수에도 새해 미국 경제가 계속 순항할 것으로 보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29일 보도했다.

NPR은 국내총생산(GDP)이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고용시장 개선 전망도 완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 저유가 덕택에 인플레이션이 전례 없이 낮게 유지되는 반면 실질 금리는 새해에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와중에 미 증시 조정 관측이 뒤로 밀리면서 또다시 낙관론이 대세가 될 것으로 NPR은 내다봤다.

다음은 5개 분야를 간추린 것이다.

◇ GDP 성장 빨라질 것

미국의 지난 3분기 성장이 연율로 5%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은 내년에도 성장 추진력이 견고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저유가 덕택에 소비 전망이 밝은 것도 성장의 뒷심이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더그 핸들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6년째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간 3%대 성장은 인상적"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과 임금도 늘어날 것

지난해 미국의 실업률은 평균 7.4%였다.

지난해 말 시장 관계자들은 올 연말 실업률이 6.6%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재는 5.8%로 더 떨어졌다. 이 추세면 내년 실업률은 5.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의 거스 포쳐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호조로 새해에는 월평균 23만 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모두 280만 명이 신규 고용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인원과 같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고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간 미미했던 임금 상승이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인플레이, 전례 없이 낮게 유지될 것

유가가 지난 6월의 절정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나고 당분간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전례 없이 낮게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내년 인플레이 전망치를 1~1.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 1.6~1.9%에서 낮춰진 것이다.

연준의 중기 인플레이 목표치는 2%이다.

◇ 장기 금리(채권 수익률), 점진적으로 될 것

올해 초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

나 적중하지 않았다.

한 예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금리는 현재 3.75% 내외에 불과하다.

반면, '내년에는 다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준도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상당 기간'을 빼는 대신 '인내심'이란 표현으로 대체했다.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이지만, 전문가들은 '새해 중반에는 기본 금리를 올린다'는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금리도 '정상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관측이다.

◇ 증시, 상승 지속 전망
극심한 침체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6,627까지 주저앉았던 다우 지수가 마침내 18,000을 돌파했다.

일부 비관론자는 다우 지수가 새해에 10% 혹은 그 이상 하락하는 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저유가란 돌변수 때문에 소비 지출 혜택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S&P의 선임 지수 분석가 하워드 실버블랫은 "증시에 또다시 극도의 낙관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jkusun@yna.co.kr

신년 월가 최대 이슈는 나스닥 5천, 애플 1조, 바이오위기

(뉴욕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뉴욕증시는 지난해 전반적인 글로벌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전인미답의 경지에 오르며 상승장구했다. 31일 마지막날 거래에서 다소 투심이 위축돼 밀리기는 했지만 연간 기준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오르며 2014년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지난 29일 2090.57로 올해 53번째 최고 신기록을 세우며 11.4%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1만8000선을 돌파하며 연간 7.5% 상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나스닥지수는 13.4% 올라 3대지수 중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 경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며 증시를 부양하는 데 기여했다.

새로 시작된 신년에 뉴욕증시의 상황은 어떨까. 월가 트레이더 사이에서 가장 이슈로 삼는 화두를 정리했다.

◇ 나스닥, 5000선 돌파할까?
나스닥지수의 31일 종가는 4736.05를 기록, 5000선에 도달하기까지 약 264포인트 남아 있다.

시장에선 나스닥지수가 내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년 만에 5000선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스닥지수는 2000년 3월 10일 장중 사상 최고점인 5132.52를 기록한 바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 앤 어소시에이츠의 제프리 사우트 전무는 "나스닥은 2000년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며 "8~10년간 이어질 장기 강세장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 애플, 6년 연속 최고주가 경신할까?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는 6년 연속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미국 기업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망한 기업이다.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6630억달러다.

다만, 애플의 시가 총액이 내년에도 당장 1조달러에 이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워치(iWatch)만으론 증시 상승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다.

포트 피트 캐피털 그룹의 킴 포리스트 부사장은 "아이워치는 그다지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며 애플 자체

에 대한 신비감도 사라졌다"며 "애플이 블록버스터급 기업에 들어갈진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거래 관련 기술적 문제 확대될까?
최근 수년간 나스닥과 선물 옵션 시장 등에서 일련의 오작동 문제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내연에도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금광업체에 투자하는 시장 벡터 금광업종지수(Market Vectors Gold Miners ETF)는 12월 초 단 수초 만에 10% 급락했다.

최대 규모의 고주파 거래(HFT) 금융업체인 버투 파이낸셜은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루이스가 저서인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에서 초단타매매의 위법성을 지적한 직후 기업공개(IPO)를 포기했다.

이 같은 사건들 중 지난 2010년 5월 일어난 순간폭락(flash crash)만큼 피해를 입은 사례는 1건도 없다. 채권시장에서 나온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0월 중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0.3%포인트 폭락한 사건이다.

테미스 트레이딩의 조 살루치 공동 대표이사는 "신년에도 최소한 1번 이상 사건들을 일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 바이오기술주 위기설 재연될까?
투자자들은 부진을 보인 바이오기술주가 새해에도 힘든 출발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최대 약국 관리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약물에 대한 보험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이를 애브비의 C형 간염 치료제로 대체한다고 밝힌 이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바이오주는 도처에서 화두가 됐다. 지난 봄엔 대량 매도세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22일에도 바이오기업의 대표주자인 생명공학 업체 길리드 사이언스가 13.9% 폭락했다.

사우트 전무는 "바이오기술주는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3~5년 동안 바이오기술 산업에서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기술주가 후퇴할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상승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다"고 전망했다. acenes@news1.kr

미국 인구 3억 2천만명 넘어서...이민자 급증 '덕분'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의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3억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인구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 1일 기준 미국의 전체인구는 3억2천9만857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 내 50개 주의 인구를 합한 것으로,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이민자가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30만명이

달하는 미군 파병 인력 등 미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됐다.

인구통계국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는 8초마다 1명씩 태어나는 반면에 12초마다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으로의 유입인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유출인구보다 많아 33초마다 새로운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미국 인구 추산치는 2014년 1월 1일에 비해 230만명가량 늘

어난 것이다. 2014년 1월 미국 인구는 1년 전에 비해 220만명 증가했다.

미국 인구는 1950년대 이후 해마다 200만~300만명 정도 증가해오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미국 내 경기 불황으로 유입 이민자의 규모가 많이 줄어든 탓이다. 게다가 당시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의 출산율도 불황 때문에 둔화했다.

gjia007@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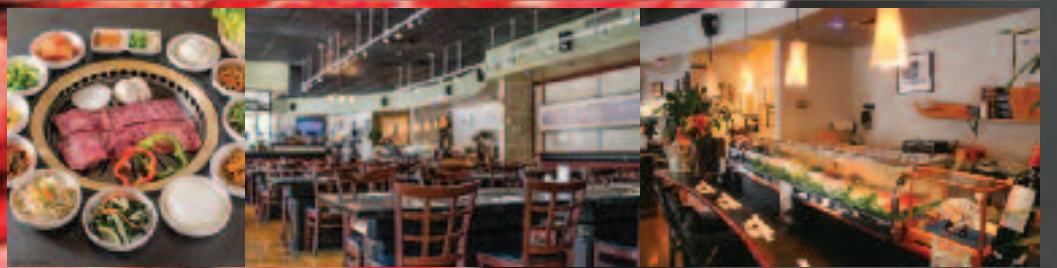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검, '땅콩 회항' 조현아·대한항공 임원 모두 구속

법, "혐의내용 소명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 혐의 은폐 시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0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지난 10일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땅콩회항'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만이다.

이날 구속된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구로 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10일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다음날 서울 강서구 공판동 대한항공 본사 2곳을 압수수색해 항공기 운항기록과 음성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과 1등석 승무원, 승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17일에는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하루 뒤인 18일 여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검찰은 사건 은폐 정황을 확인한 후 증거인멸 혐의로 여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이어 검찰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업무방해·강요 등 4가지 혐의로,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에는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관련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모(54) 국토부 조사관을 구속했다.

이로써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김 조사관 등 총 3명이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를 구속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된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부사장, 여 상무 등 대한항공에서 국토부의 '칼피아(KAL+마피아)' 전반까지 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검찰은 26일 참여연대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으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A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A조사관이 조사에 필요

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측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A조사관이 대한항공과 유착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kukoo@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 A R 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AN. 2ND - JAN. 8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Follow us on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more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cipes, events, announcements, and even entertainment!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www.facebook.com/hmartofficial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Happy

Enjoy the savings!

2015년
 을미년에도
 H마트와 함께
 행복이 가득한
 새해되시길
 바랍니다.

Let it snow

Celebrate the year of the Blue Sheep

We wish you the happiest New Year ever with Hmart.

금토일만 세일가격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신고배
Korean
Singo Pear**

box **\$24.99**

FRESH U.S.D.A. CHOICE

Beef Heel Meat 소사태

lb. **\$6.99**

FROZEN

Illex Squid 냉동 오징어

lb. **\$1.99**

2.2 lbs.

**HAIOREUM
Korean Citron Tea**
해오름 황금 유자차

\$4.99

**TIGER Elec.
IH Rice Cooker**
타이거 이 전기 밥솥
JKH-G10U/4.5 cups/ea.

\$249.99

GET SMART AND SAVE BIG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나나게 장보세요
 Exclusive sales price for members only.

Gum, That's a breath of fresh air. It's New

It's a flavorful blast of taste with every bite!

해오름 무설탕 자일리톨껌과 함께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Organic 100% DELICIOUS

스톤필드 유기농 우유 \$4.49
 All Varieties/64fl.oz.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99	C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6.99	Whole Chicken 통닭 lb. \$1.79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
Pollock 동태 lb. \$1.49	Cod Rod 대구알 lb. \$3.99	TONGTONGBAY Frozen Small Octopus Sliced 통통배 절단 낙지 1.5 lbs./pkg. \$7.99	TONGTONGBAY Dash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1 lb./pkg. \$12.99	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	NISHIKI Premium Grade Rice 니시키쌀 15 lbs. \$14.99
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도시락 김 Original/Parae 0.15oz. x 8ea./pkg. \$2.99	Red Pepper Paste 청정원 칠고추장 6.6 lbs. \$12.99	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닭표 스리라차 소스 28oz. 2\$5 ea./for	ALCHAN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 순대 1.5 lbs. \$9.99	HAI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All Varieties/2.65 lbs. \$4.99	PENGUIN Canned Mackerel/ Mackerel Pike 펄린 고등어/펄린 통조림 14.1oz. \$1.99
HAIOREUM Dumpling Wrapper 해오름 만두피 10oz. 2\$3 ea./for	KIRIN Steamed Buns 기린 속이 알찬 호빵 All Flavors/9.52oz. 2\$5 ea./for	ESBENSHADE FARMS Grade A Large Eggs 에스벤셰이드 팜 라지 달걀 18cnt/pkg. 2\$5 for	Leopard Patterned Indoor Slippers 호피무늬 겨울 실내화 All Colors/Pair \$4.49	Ceramic Tea Cup Set 세라믹 5인 다기 세트 Blue Floral Pattern/set \$13.99	HELLO HOME Stainless Steel Stock Pot 헬로홈 스테인리스 곰술 JY-211/18cm/4qt/ea. \$19.99

'정윤희 문건' 막장 드라마 체면 구긴 검찰

법, 조응천 영장 기각
문건유출 혐의 4명 중
1명만 구속 허가
야 "검찰, 국정농단
진상규명 외면"
즉각 반발 나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서울=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청구했던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2014년 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정윤희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은 어이없는 한편의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영장기각에도 영장재청구 고려 없이 불구속기소를 검토하는 등 오히려 덤덤한 모습이어서 어느 정도 영장기각을 예상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검찰이 그려낸 친(親)정윤희 회피를 몰아내기 위한 친(親)박지만 파의 의도적 유출이라는 '정윤희 문건 유출사건'의 밑그림은 여전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이해하기 힘든 한편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검찰이 감수해야 했던 상처는 상당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청와대가 세계일보 보도를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의 손으로 넘기는 순간부터 검찰이 언론의 심자포화를 맞으며 상처투성이가 될 상황은 예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감찰 사안을 검찰 수사에 맡겼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희) 동향'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를 인용, '비선실세 정윤희씨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방향 등에 간여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당사자들인 청와대 비서관들은 보도 당일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청와대의 신속한 대응만큼이나 검찰의 반응도 신속했다. 금요일인 28일 소장이 접수되고 주말이 지난 1일 사건을 이례적으로 명예훼손 전담부서인 형사1부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유상범 3차장검사로 하여금 사건수사를 총괄 지휘토록 했다.

이른바 '정윤희 문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문건 내용처럼 정윤희씨가 비선실세이며 문고리권력 3인방과 함께 국정농단이 실재했는지 여부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조사를 통해 정윤희씨가 비선실세인지,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내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검찰수사는 명확한 범죄혐의가 특정되거나 의심될 때 가능한 것이지만 정윤희씨가 정기적으로 청와대 비서관들과 모여 인사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않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안은 청와대 내부감찰과 그 결과를 통한 인사조치 등으로 마무리될 성질의 것이지만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 책임영역의 문제를 검찰수사에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잘 해야 본전이었던 수사였다"고 자조섞인 평가를 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수사였다. 청와대에서 검찰로 해결하면 될 문제를 검찰로 들고 왔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의 추악한 권력다툼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욕만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검찰의 비극이었다.

◆ 대통령의 반복되는 가이드 라인, 수사초기 발목잡힌 검찰

충격적인 세계일보 보도 사흘 뒤인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윤희 문건'에 대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위가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 밖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것도(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다"라고 규정했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언론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문건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일주일 뒤인 7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도 반복됐다. "짜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착수 초기부터 '정윤희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반복되면서 수사의 긴밀도가 느슨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검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문건에서 회합장소로 거론되는 중식당을 압수수색하는 등 일견 발빠른 대처를 했지만 청와대 자료나 휴대전화는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심지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사용한 컴퓨터도 압수수색 형식이 아니라 넘겨받았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부적절한 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 얼마든지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상존했지만 적극적인 증거확보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진 소환에서도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을 주말에 비공개 소환하고 정윤희

회씨 소환 뒤에는 조사실이 있는 층의 언론출입을 통제하는 등 문건작성과 관련된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비서관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모양새였다.

◆ 부실한 수사과정, 초라한 성적 내용조차 애매한 사건을 맡아 발목에 족쇄까지 찬 채로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을 리가 없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대통령의 발언대로 '정윤희 문건' 내용을 허위로 규정하는 다음에는 본격적인 유출자 색출작업에 나섰지만 정확한 유출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결국 박관천 경정이 경찰로 파견 복귀 초기 잠시 머물렀던 서울경찰청 정보보실에 근무하는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동료였던 한 경위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청와대가 회유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이 허위 문건 작성자로 박관천 경정을 지목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여기서는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이 문제가 됐다. 대통령과 검찰이 허위이자 '짜라시'로 규정된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이 틈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박관천 경정이 '정윤희 문건'이나 '박지만 미행 문건'을 스스로 조작했다는 해명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배후론'이 등장하기 시작했

다. 청와대가 박 경정의 배후로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을 지목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결국 검찰은 박 경정 구속 10여일 만에 일사천리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 전 비서관이 검찰의 두차례 소환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조 전 비서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시점이었다.

혐의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의 영장청구는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 경위에 이어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검찰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따름이다.

한달여간 2개 부서를 동원하고 검찰이 얻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전 정권에서도 권력편향적이라는 비판은 솔하게 받아왔지만 그래도 나름 체제 안정에 이바지 한다는 자기만족감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권 내부권력다툼의 뒤치다꺼리만 하다 조롱만 당한 셈이 됐다.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의 체면이 여지없이 깎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소모적인 사건이 박근혜정권 내내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검찰 인사는 "과거에는 검찰이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자존감이라도 있는데 이제는 난장판이 된 집안청소만 죽어라 하고도 욕만 먹는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북 주민들은 '아무나' 아니다" 오준 유엔대사 연설 큰 울림

오준 주 유엔대사 연설, 페이스북 '좋아요' 16만건 북한인권 무관심했던 데 대한 반성 목소리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이 겨우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

우리 정부 유엔 대사의 북한인권과 관련한 5분 남짓한 연설이 네티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오준 주(駐)유엔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북한 지도부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명기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는 등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던 우리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적절한 입장 전달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 대사의 연설은 적절한 수준 그 이상이었다. 오 대사의 연설이

있는지 일주일이 넘는 30일까지 SNS에서는 오 대사의 연설을 담은 동영상 이 계속해서 확산됐다.

보기 드물게 유엔 대사의 연설이 국내 SNS에서 관심을 끈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남측 국민으로서의 '진정성'이 전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 8분 가량의 연설에서 오 대사는 처음 5분 가량은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담은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그러나 나머지 3분 가량을 오 대사는 연설문 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오 대사는 연설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just anybody)가 아니다. 우리 국민 수백 만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이 겨우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적은)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우리의 가슴을 찢었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같은 비극을 겪은 것 처럼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말했다.

준비된 원고없이 한 마디 한 마디 이어가는 오 대사의 목소리는 비장한 내용과는 달리 차분했다. 다만 그 차분함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남측 국

민들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비장함도 담겨있었다.

오 대사의 이같은 연설은 이산가족을 둔 집안 내력에 연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대사의 모친과 장인의 고향이 이북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장인의 경우 이산가족상봉을 여러차례 신청했지만, 끝내 북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사의 연설을 접한 국제사회 각계 인사들도 '공감'으로 화답했다.

서맨사 파워 미 대사는 오 대사의 연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으며, 오 대사에 직접 전화 걸어 연설에 대한 감흥을 전했다고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오 대사를 따로 만나 연설을 칭찬했다는 후문이다.

국내 SNS 사용자들의 반응은 더 뜨겁다. 오 대사의 연설은 지금도 꾸준히 SNS를 타고 전파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에서 오 대사의 연설 동영상에 대한 '좋아요'는 30일 오후 현재 16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도 아닌 정부 유엔대사의 연설이 십수만 건의 '좋아요'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오 대사의 연설을 SNS로 접한 한 사용자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고 연설을 들은 소감을 밝혔다.

bin1981@news1.kr



정치댓글 대선개입 책임자들 솜방망이 처벌

연제욱 전 사령관에 집행유예, 옥도경 전 사령관엔 선고유예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정치댓글 대선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소장)을 비롯해 이를 지휘한 4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연제욱 전 사령관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옥도경 전 사령관(준장)은 선고유예했다.

연·옥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한 2010년~2013년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들을 비판 및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정치간여)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또 작전을 총괄한 담당자인 박모 사이버사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선고유예했으며 정치간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4급)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unjam@news1.kr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준장)

제2롯데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논란

'안전상 문제 없다' 주장,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보수공사 중

(서울=뉴스1) 오경목, 양새롬 기자 = 아쿠아리움 누수, 근로자 추락사고, 출입문 분리사고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시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에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 주차장 바닥에 균열 현상이 발생해 롯데 측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디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관리대장에 기록한 뒤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찾은 제2롯데월드 지하주차장에서는 일부 인부가 바닥에 페인트칠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균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수보강이 잘 되어서 그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균열이 생긴 부분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면 균열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작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롯데월드 지하주차장은 몰탈 소재를 이용해 마감처리를 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라고 한다.

롯데건설 측은 콘크리트는 편평하게 만들기가 어려워 몰탈 소재로 마감했고 이 소재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이 잘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일부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에서 안전성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롯데건설 측은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제2롯데월드 개장 직후인 지난 10월에도 5~6층 식당가 바닥에서 균열현상이 발견됐고 당시 롯데는 "균열이 아닌 디자인"이라고 해명하 바 있다. 식당가에도 지하주차장과 같은 '몰탈' 소재를 이용해 마감처리를 했다.

notepad@news1.kr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토티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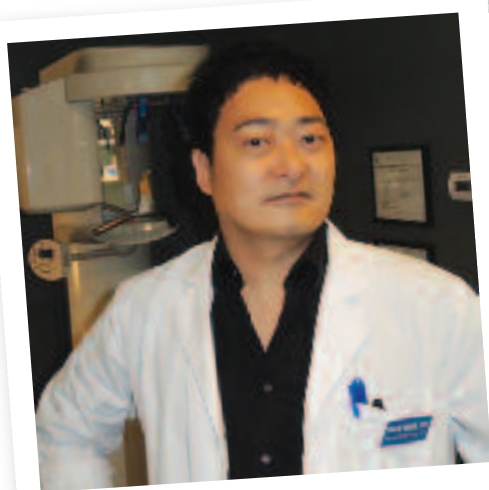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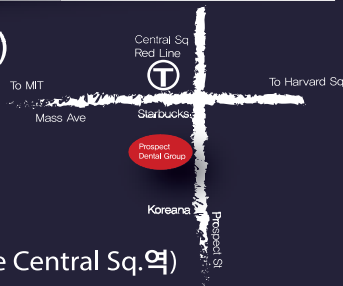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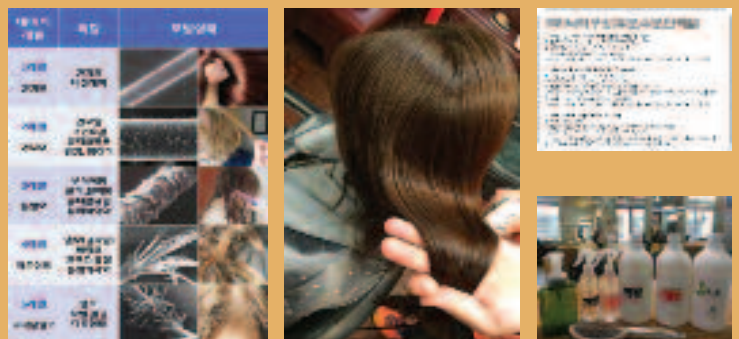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트업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친박, 김무성 맹성토 이틀째...여진 지속

김무성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 표정 관리
친박 "김, 당 독단적 운영 그냥 안둬"
새해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박(非박근혜)계와 친박계 의원들은 31일 당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전날(30일) 친박계 의원들은 대구 모 송년모임에서 "김 대표가 인사 등 당 운영에서 전횡을 한다"며 작심한듯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더해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 중진 의원들만 청와대에 초청해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전날 김 대표는 친박계 의원들의 정면비판에 "사당화는 무슨 사당화냐"고 반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친박 대 비박'의 전면전이 시작됐으며 "터질 게 터졌다"는 말들이 나왔다. 전면전 이틀날인 이날 김 대표는 애

써 쓴웃음을 지으며 계파갈등 확산을 자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당 사무처 직원들과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것"이라며 "많은 의견이 분출되고 그 의견을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친박계) 의원들에게서 그런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해에서 생긴 이야기는 잘 이해시켜드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처럼 갈등 봉합을 시도하면서도 친박계를 향한 미묘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다. 우선 박 대통령이 친박 중진 의원들 하고만 비공개 만찬을 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우리 박 대통령께서 다 좋은 데 소통이 부족하다고 다들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라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과 그런 형식의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날 새해를 맞아 1일 고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신년 인사를 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극장에서 당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영화 '국제시장'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을 일제히 예방하는 것이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당 인사, 자원의외국정조사 등 현안을 두고 예민한 시기에 굳이 이전 대통령을 찾아가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김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쏜 친박계 의원들 역시 김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이어갔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지역 일간지와

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에 대해 "주요 당직에 김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만 배치했다. 그렇더라도 김 대표가 소통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에 대해 "도저히 여연원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박계 다른 중진 의원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가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항상 간직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신년에는 걱정스러운 지도부를 잘 보완하겠다"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eriwhat@news1.kr

문재인·박지원 새해 광주서 경쟁, 당심 끌어안기 총력

당대표 출마 두 의원 시간차 두고 모두 무등산 신년산행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빅2'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박지원(가나다순) 의원이 1일 전통적인 야권의 텃밭인 광주를 동시에 찾는다. 광주는 야권의 심장부로 불릴 만큼 중요한 곳으로 상징성이 크다. 두 의원 모두 새해 첫 일정을 광주로 정하며 정면승부의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7시40분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당 단배식 행사에 참석해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현충원과 현충원내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곧바로

광주로 향한다. 문 의원은 광주에서 곧바로 지지자들과 함께 무등산 신년산행에 나설 계획이다. 산행을 마치면 문 의원은 광주 동구로 이동해 당원과 간담회를 한다. 당초 문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무등산 산행을 계획했었는데 박 의원과 일정이 겹쳐 오후 1시로 산행 일정을 바꿨다. 애초 대로라면 박 의원과 30분 간격을 두고 산행을 하는거라 두 의원이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앞서 무등산 산행 일정을 놓고 박 의원측이 "일정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문 의원측은 "따라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문 의원이 산행 시각을 오후 1시로 늦추면서 일단 신경전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문 의원과 달리 이날 곧바로 광주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박 의원은 오전 8시30분께 무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좌)과 박지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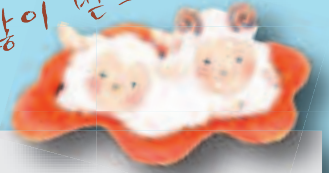
산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결의대회를 가진 뒤 산행에 나선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상경, 서울 동교동 김대중평화센터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박 의원은 신년인사회에서 동교동계 사람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이희호 여사와 덕담도 나눌 예정이다.

행사를 마치면 박 의원은 다시 광주로 내려가 지지자들을 찾을 계획이다. sanghwi@news1.kr

1月 AMORE EVENT

올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ORLD'S FIRST AIR CUSHION[®] XP
 Receive an IOPE Soam Cell 3pc. Trial Kit with purchase of an Air Cushion[®] XP.

Receive a Super Vital Cream 100ml with purchase of Super Vital Cream 100ml.

Receive a free \$50 gift when you spend \$50 or with a \$50 Essence purchase.

1+1
 Buy one Menaxin hand cream, get one free.

AMORE
 보스톤점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러, 미장센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보스톤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짱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발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두께로 0.4mm의 두께로 쉽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The Nazarene Church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Parish in Greater Boston

<관공성사>
12/5, (금), 6(토) 대림피정 중
12/14(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12/21(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12/24일(수) 8pm

<성탄절>
12/25(목) 4pm
(성탄절 행사-12:15pm)

<송년미사>
12/31(수) 9pm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1/1(목) 11:30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kccboston.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시연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CJ korea express

항공이사. 택배

로컬이사
타주이사
차량운반

해운이사. 귀국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이사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CJ K E BOSTON MOVING
대한중운보스톤대리점

T 978-461-2424 / 888-237-9399 keboston2424@gmail.com
<http://www.keboston.com> Add : 51 Knox Trail Unit # 3, Acton, MA 01720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힌류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매운탕까지



사시미A18인치 투고박스: \$150

160피스+매운탕+마끼4개
T10,S20,F40,H10,W20,R40,i20



사시미C14인치 투고박스: \$80

70피스+매운탕+마끼2개
T10,S10,F10,H10,W10,R20



사시미B16인치 투고박스: \$100

110피스+매운탕+마끼3개
T10,S10,F20,H20,W10,R20,i20



사시미D12인치 투고박스: \$50

50피스+매운탕+ 마끼1개
T6,S6,F10,H6,W10,R12

T: TUNA, S: SALMON, F: FLUKE, W: WHITE TUNA, R: RED SNAPER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스코티시 셀몬,하마찌,장어,새우,오징어 등등

A: 72피스, 초밥 \$98.95

B: 64피스, 스페셜롤 \$74.95

C: 64피스, 캘리포니아롤 \$34.95

D: 48피스, 캘리롤24피스,초밥24피스 \$48.95



김밥:

A: 김밥 200피스, 유부초밥20개 \$130

B: 김밥 100피스, 유부초밥10개 \$70



사시미 폭코스

횃집스타일 코스요리를 제공하오니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 많은 애용바랍니다.
싱싱광어한사라,아구간,열빙어튀김,나또무침,한치물회,힌류나,생굴,우니,초밥,
스켈럽버터구이,생선찜,스페셜마끼,얼큰매운탕,모찌아이스크림
일인당40불이며, 단 예약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은
오빠스시와 함께**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NFL 플레이오프 상위 4팀의 강점과 약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17주 동안 치러진 NFL 정규시즌이 막을 내리고 이번 주부터 각 컨퍼런스별로 플레이오프 경기가 시작된다. 와일드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은 정규시즌이 끝나기 무섭게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탑 시드를 받은 상위 4팀은 1주를 쉴 수 있어 비교적 여유 있게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

각 컨퍼런스에서 탑 시드를 받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4팀은 이번 주에 경기가 없지만 가장 강력한 수퍼볼 우승 후보 팀들이다. 플레이오프 시작에 앞서 각 팀의 최대 강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New England Patriots (12승 4패, AFC 1번 시드)

강점: 빌 벨리치 감독이 오프시즌 동안 대릴 르비스와 브랜든 브라운너를 영입한 순간,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챔피언십 경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패트리어츠는 상대팀에서 패스를 가장 잘 받는 리시버를 맨투맨 수비로 꽂꽂 묶어 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은 수비 자원을 러닝 수비와 패스 러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팀을 엔드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2000년대 초반 4년 동안 3번의 수퍼볼을 차지할 때와 근접해 있다.

약점: 패트리어츠의 전반적인 공격

력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의 흐름을 한 번에 역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시버가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줄리언 에들먼과 브랜든 라펠은 훌륭한 리시버이며,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경기장을 폭넓게 사용하지 못하고 단거리 패스에만 의존한다면 상대편은 그만큼 수비하기가 쉬워진다.

Denver Broncos (12승 4패, AFC 2번 시드)

강점: 브롱코스는 페이튼 매닝이라는 최고의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닝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그러나 브롱코스는 정규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꾸준하게 러닝 공격을 시도하며 공격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패스 공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러닝과 패스의 균형 잡힌 공격으로 브롱코스는 AFC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단점: 브롱코스는 매닝이 있기 때문에 정규시즌 최고의 팀으로 꼽혔지만, 오히려 플레이오프에서는 매닝의 존재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정규시즌에 5번 MVP를 수상한 매닝은 플레이오프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매닝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현저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Seattle Seahawks (12승 4패, NFC 1번 시드)



AFC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패트리어츠는 지난 10년 동안 수퍼볼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강점: 디펜딩 챔피언인 시호크스는 지난 시즌 막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수퍼볼 트로피를 차지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시호크스는 패스와 러닝에 대한 수비에서 모두 상대팀을 압도하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다. 속도와 힘을 겸비한 시호크스의 수비는 플레이오프에서도 빛날 것이다.

약점: 수비가 강한 반면에 시호크스의 공격은 의문점을 갖게 한다. 더 정확히는 시호크스의 오픈스브 라인이 문제가 있다. 주전들의 부상으로 라인

맨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고, 기복이 심한 편이다. 쿼터백 러셀 윌슨이 지금까지는 잘해주었지만, 치열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윌슨의 개인적인 능력에만 기댈 수는 없다.

Green Bay Packers (12승 4패, NFC 2번 시드)

강점: NFL 최고의 쿼터백 덕분에 패커스는 어떤 팀이라도 이길 수 있다. 쿼터백 아론 로저스는 올해도 MVP급의 경기를 펼쳤고, 특히 홈경기에서는 무적에 가깝다. 뛰어난 쿼터백에 조디

넬슨, 랜달 콕 같은 재능있는 리시버를 겸비한 패커스의 공격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약점: 패커스는 수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규시즌에서는 막강한 공격력이 수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지만, 치열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패커스는 기동성이 뛰어난 쿼터백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69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세월의 흐름따라 골프도 바뀐다

누구나 한해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한해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족하기보다는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았음을 보면서 아쉬움에 싸여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뒤를 돌아보게 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고찰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거름인 동시에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이니 볼 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해 한해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편이어서 늘 여러가지의 일들이 있는 편이었는데 지난 2014년은 여러가지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첫째로 신분의 변화다. 국적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직업의 변화다. 지난 7년 동안 풀타임 프로 골퍼로서의 일을 접고 골프는 파트 타임으로 돌리고 풀타임으로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으니 이 또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다행인 것은 골프를 직업으로 대했을 때의 그 흡사한 열정이 나온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흥이 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인데 가슴의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잘 잘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로, 생활의 변화다. 가장 크게는 가족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26년 동안 살아온 와이프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좀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한평생을 동행 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육적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가슴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것을 말한다. 마지막 넷째로 신앙의 변화다. 그렇다고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골프도 바뀐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윙도 바뀐다. 뼈마디가 굳어져감에 따라 백스윙의 정도가 줄어든다. 근육의 양이 줄어들어감에 따라 임팩트 때의 파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역하면 몸이 망가질 수 밖에 없다. 옛날의 화려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헤어나오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망가질 수 있다. 어찌보면 변화라는 것이 무서울 수 있다. 그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극복되는 순간 새로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삶으로 알아가고 싶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義(의)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But I tell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義)로운 자와 불의(不義)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that you maybe sons of your Father in heaven. He caus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and send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 마태복음 5:44-45

2014년 한국의 10대 뉴스는(조선일보 선정)

1.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 지난 연말까지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233만명. 유병언 전 세모그룹 검거하는데 실패. 그는 변사체로 발견됐는가 하면 60%를 넘나들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툭 떨어지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으로 6월 지방선거 등을 치르려 했지만 오히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무너졌다.
2. 온 국민이 세월호 비극에 시달리며 여행과 공연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1분기에 0.9%를 기록했던 실질 GDP성장율이 2분기에 0.5%로 급락, 올해 GDP성장율은 3%대로 목표 4%를 훨씬 밑돌았다.
3. 통진당이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이라는 이유로 창당 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소속의원 5명에 의원직을 박탈했다. 해산 결정에 대해 현재는 통진당의 핵심간부와 의원들이 과거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최종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이기 때문이라고.
4. 청와대 비선 실세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희 씨가 청와대 핵심비서관 3인방 등과 수시로 모여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공직기 감비서관실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 씨측과 박지만 EG회장측과의 권력암투설까지로 비화. 검찰 조사결과 문건내용을 허위로 잠정결을 내리고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행정관)을 구속했다.
5.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 :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기자회견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경제가 대도약할 기회" 라고 이어 1월 22일 스위스 과보

스포럼에서 "통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큰 이익을 줄 것" 이라 했고 3월엔 독일통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대북3대제안을 포함한 "드레스덴 통일구상" 을 발표.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기도.

6. 총리 후보 줄줄이 낙마: 세월호 정국 수습을 위해 박 대통령은 5월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카드를 꺼냈지만 2명의 총리후보가 연이어 낙마.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고액수임료 논란으로 6일만에 사퇴. 문창극 전 중앙일보주필은 과거 교회 강연에서 했던 "친일사관(史觀)" 논란에 휩싸여 후보거론 2주일만에 후퇴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지 60일이 지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
7.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이 시대 리더십의 방향을 보여줬다. 100시간 가량 머물면서 갈등 당사자의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성심을 다해 고통을 경청하고 함께 아파했다.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까지 쟁쟁 세월호 사건이 그랬고 일분군 위안부 문제가 그랬다. 고통에 귀 기울이며 숭선하는 교황의 리더십은 바티칸의 기득권 철옹성도 녹이고 있다.
8. 군(軍)에서 전례 없는 사건사고가 이어져 4월에는 육군 28사단 유폐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졌으나 3개월 가까이 은폐, 6월에는 22사단의 임도 병장이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 추격전을 벌였고 9월에는 신현돈 제1군사령관이 음주운전 문제로 전역조치 되고 10월에는 육군17사단장이 집무실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기도.
9. 땅콩하나 때문에 항공기를 되돌린 재벌 3세: 대한항공 소유주 3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논란이 연말을 달구었다. 12월 5일 자신이 타고 있던 미국 뉴

욕발 KAL(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재벌 3세의 일탈행위" 비판이 들끓었다. 국토부는 KAL에 대한 운항정지등제재계획을 발표, 검찰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범처리 중.

10.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이 8개월 째 병상에 있다. 이 회장의 입원으로 삼성은 스마트폰 실적둔화의 수렁에 빠지는 등 경영리스크가 불거진다. 제일모직, 삼성SDS 등을 상장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관리구조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義의: 事物 | 名 사물신지. 이 글자는 羊양과 我아, '나' 의 두 글자가 합성된 것.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관련된 모든 "일(事)" 과 "물질(物質)" 이 나(我)를 떠나서는 없다는 뜻. 문제는 그 사물이 "내게 반드시 의미와 뜻" 을 전하는데 그 "뜻" 은 하나님이 내려 보내시기에 " | ㅅ신지" 로 불리는 것.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그 두 분 사이에 "내" 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ㅅ)이 반드시 담겨 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뜻(| ㅅ)을 나나 내 주변 인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기도(祈禱)를 통한 순종 밖에는 길이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수단이어서다.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主祈禱)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 마태복음 6:10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 ㅅ)을 확인하는 통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 것으로 고집하거나 우격다짐을 쓰는 데서 '믿음의 고난' 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부작용

을 일으키는 교파나 교회들이 많다.

양자를 분석하면 八(구원)이 하나님(一), 예수님(二) 그리고 성령님(三)께서 하늘(天國)에서 땅으로 내려온 형상이 羊자다. 그 羊 밑에 我(吾也己稱오야기칭: 나 아 또는 우리 아 또는 此也차야: 우리 아로 해석한다.)

해서 我는 내 손(手)에 전장할 수 있는 무기 창(戈)이 잡혀져 있다는 것. 내 생활이 羊(또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뜻으로 이 땅에 보내져서다. 해서 羊이 이 땅에 보내진 까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but you mus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창세기 2:17

바로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주(永生之主)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신 것. 해서 무죄한 양(羊)이 나(我 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한 영원한 죽음(永死)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영원한 생명의 피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25,26

을미년 羊띠 해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Immanuel: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만나면 永死(영사)에서永生(영생)으로 영원히 옮겨 앓을텐데... 영생 만세!!!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최우수 고객 서비스 제공 업체 (NAR) / 2014년 최우수 고객 서비스 제공 업체 (NAR) / 2014년 최우수 고객 서비스 제공 업체 (NAR)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29,99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1 January 2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68

〈특별편〉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의 추천 업소

- ▶ 볼스퀘어 카페
- ▶ 휴 오닐스
- ▶ 마리아스 페스츄리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호에 이어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의 추천 업소' 두 번째 편을 준비했다. 이번에도 브런치 가게부터 아일랜드 레스토랑 겸 선술집, 리틀 이태리의 페스츄리점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새해를 맞아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보스톤의 맛집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들의 동일한 의견이다.

볼스퀘어 카페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 휴 오닐스(Hugh Oneill's)

45 Pleasant Street, Malden, MA 02148
hughoneills.com
781-338-9977

흥겨운 음악이 라이브로 연주되는 휴 오닐스는 몰든 역 근처에 위치한 아일랜드 레스토랑 겸 선술집이다. 이곳은 클럽차우더, 치킨텐더 등의 각종 에피타이저와 햄버거 메뉴가 유명하다. 특별히 해피아워(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 4시 30분~저녁 7시)에 가면 웬, 케사디아, 나초, 치킨텐더 등의 에피타이저가 \$3.50이다. 음악과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특히 추천하는 타코 샐러드(\$8.99)는 아보카도, 토마토, 치즈 등의 각종 신선한 재료가 토마토 피아 볼에 푸짐하게 올려져 나온다. 부담스럽지 않은 건강한 한끼 식사로 제격일 듯하다. 한편, 토요일 오전 11시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아일랜드 브런치 메뉴 (Traditional Full Irish Breakfast)가

\$9.99에 제공된다.

▶ 마리아스 페스츄리(Maria's Pastry)

46 Cross Street, Boston, MA 02113
617-523-1196
mariaspastry.com

'리틀 이태리' 라고도 불리는 노스 엔드에는 골목마다 이탈리아 페스츄리 점이 눈에 띈다. 여러 유명한 가게들 중에서도 특별히 맛있다고 소문이 난 마리아스 페스츄리의 카놀리(이탈리아 디저트)는 인기가 대단하다.

다른 곳에 비해 카놀리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는 것이 손님들의 말이다. 피스타치오나 초콜릿 칩이 박힌 리코타 치즈 카놀리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메뉴다. 무엇보다 이곳 카놀리의 모양은 전부 제각각이다. 하나 하나 직접 만든 카놀리에서 주인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 오히려 좋다는 호평이 자자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오후 5시에 닫는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lo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서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회철거정신교양협회	978-407-7554
국회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맹(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수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시안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연합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의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 어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유스 교회	508-799-4488
위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교회	617-770-2755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텀링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8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77-1735
헤어 센스	617-78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617-8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캠퍼스(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북경반점1	617-623-7220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사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돌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부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이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메이정치과	781-894-1127
아이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상충학비철임플랜트	781-89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1/2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86

12/12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12/12
세탁소 스퍼터 프레스 구함
초보자도 환영, Natick
T. 508-655-5004

12/19
워터타운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857-266-4175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대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12/19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11/28
N [매 매]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2/27
N [매 매]
한국마켓(미시시피)
성업중인 마켓, 사정상 좋은가격에 급매합니다.
사실분 연락 바랍니다.
T. 512-775-6429

11/28
N [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케비넷도어, 트림, 유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10/17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12/19
N [구인]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에서 호스테스 구함
숙식제공,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1/2
N [구인]
마담,웨이터 구함
수준높은 실리콘밸리지역
손님 수준높고,팁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주급+TIP 월 6천 - 1만)
산호세 지역 센스 룸살롱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sinow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2015년도 유재석의 해? 독주 계속되나

MBC·KBS 연예대상 거머쥐며 '지존' 지켜 라이벌 강호동은 주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2015년 방송예능계에서도 유재석(42)의 독주가 이어질까.

유재석이 연말 진행될 2014 방송 3사 연예대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지켜온 예능계 왕좌 자리를 다시 한번 굳건히 했다.

그는 MBC와 KBS의 연예대상을 차지했고, 마지막 SBS 연예대상 시상식을 앞두고는 그가 사상 처음으로 방송 3사 연예대상을 싹쓸이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SBS는 이경규에게 대상을 안기면서 유재석에게는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을 줬다.

비록 방송 3사 대상을 모두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난해 유재석이 방송 3사에서 고루 '지존'의 위치에 있었음은 별반 이견이 없는 사실이다.

SBS 관계자 역시 "시청률로만 보면 '런닝맨'의 유재석에게 대상을 안기는 게 맞지만 상이라는 게 언제나 인기 프로그램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공로도 인정해야하기에 올해는 일찌감치 이경규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예년 같으면 강호동이라는 막강 라이벌이 있어 둘의 경쟁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2014년에는 유재석의 독주 체제가 펼쳐졌다. 세금 과소 납부 논란에 따른 1년간의 활동 중단 후 돌아온 강호동이 예년만 같지 못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방송 예능계는 자연스럽게 유재석·강호동의 2인 구도에서 유재석의 1인 독주로 옮겨갔다.

강호동을 비롯해 신동엽, 김병만, 이경규, 김준호, 김구라, 박명수, 서경석 등의 존재감도 상당했지만 유재석을 넘어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유재석은 한국갤럽이 선정한 '올해를 빛낸 개그맨' 1위에 3년 연속 올랐다. 유재석은 이번 조사에서 43.3%의 지지를 얻었으며, 20.7%로 2위에 오른 김준호를 무려 22.6%포인트 앞섰다. 압도적인 1위인 것이다.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KBS2 '해피투게더'와 '나는 남자다'를 진행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누린 그는 앞서 갤럽이 2005년~2009년 시행한 같은 조사에서도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과 2011년 잠시 2위로 물러났다가 2012년 다시 1위로 복귀했다.

갤럽은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유재석 시대"라며 "현재 유재석의 가장 큰 경쟁자는 개그맨이 아니라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이들, '비정상회담'의 외국인들, '꽃보다 청춘'의 꽃할배들, 또는 유재석 본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재석은 또한 10대부터 6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가 관계자들은 당분간 이같은 유재석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겸손하며, 동료들 살뜰히 챙기는 리더십을 갖춘 유재석의 아성이 무너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유재석이라고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KBS가 지난해 유재석을 내세워 만든 '나는 남자다'는 내내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다 폐지됐다. 시즌제로 기획됐기에 시즌2로 찾아올 것이라고 KBS는 밝혔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KBS는 그런 유재석에게 연예대상을 안기며 그의 공로를 치하했다. KBS 장수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를 수년간 안정적으로 진행해왔고, '나는 남자다' 역시 성심을 다해 이끌었다는 평가다.

SBS가 '힐링캠프' '봉어뽕' 등을 안정적으로 끌어온 이경규의 공로를 높이 사 연예대상을 안긴 것과 같은 이유로, 방송사의 연예인 관리 차원이기도 하지만 KBS는 연예대상을 수여하며 대체하기 힘든 유재석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정재 임세령 열애설 결국 인정

디스패치 3년째 새해 첫날 열애설 보도 적중

(서울=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3년 1월 1일 비와 김태희 열애설 보도를 시작으로 매해 1월 1일 열애설 특종을 터트려 온 디스패치가 올해는 배우 이정재(41)와 재벌가 대상그룹의 상무 임세령(37)의 열애설을 또다시 보도하며 열애설 지존임을 증명했다.

이정재보다 4살 연하인 임세령은 대상그룹의 명예회장이자 대상홀딩스의 대표이사 임창욱 회장의 장녀로 현재 대상그룹 식품 사업 총괄 상무로 재직중이다. 임세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결혼했다. 지난 2009년 이혼했으며 2명의 자녀가 있다. 현재 이 두 자녀는 이재용 부회장이 양육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06년 당시 이정재의 연인이었던 김민희 씨의 소개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정재 소속사는 이를 적극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재는 대상그룹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고 이정재와 임세령은 거리낌 없이 만나고 다녀 친구사이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이정재가 서울에서 쉬는 경우 일주일에 3일

이상 임세령이 이정재를 방문했고 이정재의 집에서 회사로 출근했다고 각종 사진 등을 근거자료로 보도했다. 2010년에는 필리핀에 동반 여행했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다.

결국 이정재 소속사는 1일 이번 열애설을 인정했다.

'히든싱어' PD, 이승환 공연 극찬

"20만원 이상 줘도 아깝지 않아"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 조승욱 PD가 이승환에게 극찬을 보냈다.

조승욱 PD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진짜' 공연 안 보신 분들 일단 남은 수원, 대구 공연 빨리 예매하시길! 20만 원이 넘는 내한공연도 많은 요즘 정말 20만 원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은 공연입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진짜' 서울 공연을 관람한

후기를 전하며 "정말 대단하다.(노래, 무대, 조명, 음향, 특효, 의상, 영상, 구성, 연출, 아이디어, 관객 모두) 미국, 일본 등 해외 아티스트들도 감동할 경지, 이 공연 만든 분들과 일해 보고 싶다"고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올해 방송된 '히든싱어 3'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조승욱PD가 연출하고 이승환이 출연했던 '히든싱어3'는 이번 시즌 최고의 에피소드로 꼽힐 만큼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승환은 오는 31일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kun1112@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2월 22일 ~ 12월 28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8.7%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5.5%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4.2%

4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20.9%
5	MBC	무한도전	19.8%
6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9.1%
7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8.8%
8	KBS2	해피선데이	17.9%
8	KBS1	KBS9시뉴스	17.9%
10	KBS2	개그콘서트	16.6%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02	위아래	EXID
03	LUV	Apink
04	광화문에서	규현
05	크리스마스니까	성시경, 박효신
06	Angel	윤미래
07	GOOD BOY	GD X TAEYANG
08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아이유
09	세 사람 (With 성시경)	토이
10	사뿐사뿐	AOA

숫자 퍼즐 (Sudoku)

	6	2	1	5				3
		7		2		6		
					7		8	
				9		3		
2		9	7	3	4	8		6
		3		8				
	7		5					
		8		4		5		
6				7	3	2	4	

2015 을미년 운세

띠별로 보는 2015 을미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기쁨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p> <p>바쁜 나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은 때로 이어나 직장의 이동이 있는 해입니다. 매사에 침착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양보를 하고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가을에는 기쁨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p>	<p>소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때</p> <p>변화를 주지 말고 하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노력하거나 기대한 것에 비해서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금만 마음을 가지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쓸쓸이를 자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투자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p>	<p>범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p> <p>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힘과 지위와 인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해입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획기적인 사업도 연결되고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때입니다. 증권은 장기전이 유리합니다.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업무가 정상으로 가동되며 소망했던 일도 이루어지겠습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p>
<p>토끼띠 환한 기운이 맴돌고</p> <p>어렵던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환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가 황금 마차를 타게 되는 것처럼 행운이 따라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지식이나 더욱 전문적인 훈련, 그리고 직업의 발전을 시도하므로 이득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p>	<p>용띠 일보전진을 위해 일보후퇴를</p> <p>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보전진을 위해 일보후퇴를 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성문제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특히 새로운 교제는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p>	<p>뱀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p> <p>자신의 지위가 향상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입니다.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고 행운이 함께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핑크 빛 무드가 감돌고 결혼의 시기로 최상의 해입니다. 직장인은 승진하고 실력 발휘를 맘껏 하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p>
<p>말띠 활력이 넘치고 밝은 앞날이 보이고</p> <p>활력이 넘치고 밝은 앞날이 보이고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고요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따라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매듭이 풀리게 되므로 애태우던 일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케도수정이 있는 해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환자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숨겨져 있었던 재능을 맘껏 발휘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p>	<p>양띠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는</p> <p>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꾸준히 발전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기대됩니다. 좋은 나쁜건 극적인 사건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빠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없는 해입니다. 돈이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기도 하는 때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p>	<p>원숭이띠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p> <p>집안에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해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p>
<p>닭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p> <p>큰 뜻을 이루고 즐거운 웃음 속에 지내게 되겠습니다.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약하고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음식이 양자가 되니 긴 방향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는 해입니다. 직장인은 파격적인 승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p>	<p>개띠 꼼꼼히 살펴보아야</p> <p>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하는 해입니다. 남을 쉽게 믿지 말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자신이 처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p>	<p>돼지띠 재물과 명예가 한 아름 들어오는</p> <p>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기회가 다가옵니다. 재물과 명예가 한 아름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수입과 수익 면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수확합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로 전망이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교적인 면에서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p>

최민수 수상 거부 이유는 세월호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세상”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배우 최민수가 황금연기상 수상 거부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2014 MBC 연기대상'에서 '오만과 편견'으로 황금연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 불참한 최민수의 대리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백진희는 "문자로 수상 소감을 보내주셔서 프린트해 왔는데 프린트해 온 종이 사라져 급히 펜으로 옮겨 적어왔다. 시간이 없어 전부 적어오지 못했다"며 최민수의 수상소감 일부를 읽었다.

최민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인천지검 민생안전팀 부장검사 문희만입니다.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MBC, 김진민 감독, 이현주 작가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오만과 편견'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들에게 감사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천지검 민생안전팀에게도요"라며 '오만과 편견' 제작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후 "하나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은 제가법을 집행하는 검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뭐 잘한게 있어야 상을 받죠. 그렇죠?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 수상을 정중히 거부하려 합니다"라고 말해 수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진희가 미처 적지 못한 최민수의 수상 거부 의사에는 세월호 참사가 우회적으로 표현돼 있었다.

백진희가 미처 전달하지 못한 소감에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갇혀 있는 양심과 희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나 할까요?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진실과 양심이 박제된 이 시대에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만과 편견'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거죠? 그죠"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최민수는 "국민들 모두의 가슴 속엔 슬픔이 아직도 자리잡고 있고, 나 역시 그중 한명이다"라며 "상식적인게 비상식적으로 비치는 세상이 안스럽다"고 말했다.

soho0901@news1.kr

인기가요 에이핑크, 3주 연속 1위

"핑크팬더 사랑해" 눈물글썩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인기가요' 에이핑크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소감을 전했다.

에이핑크는 지난 28일 오후 1시15분 방송된 SBS '인기가요'(MC 김유정, 황광희, 홍종현)에서 윤미래와 지디X 태양을 제치고 'LUV(러브)'로 1위를 차지했다.

1위 트로피를 거머쥔 에이핑크는 "생각지도 못했다. '러브'를 사랑해준 분들, 핑크팬더 진짜 사랑해"라고 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은지는 "2014년 마지막 1위를 저희가 받아서 감사하다. 소속사 식구들

에게도 감사한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Luv'는 스트링과 미디 신디 사운드가 빠진 샘플링 기법으로 구현해낸 사운드 특이한 곡이다. 기억속 어딘가 남아있을 사랑의 흔적을 따라 걷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누리꾼들은 "인기가요 에이핑크, 핑크팬더들 감동했어", "인기가요 에이핑크, 올해 걸그룹 중 정말 최고였다", "인기가요 에이핑크, 지금 이미지 그대로 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인기가요'에는 에이핑크, AOA, 비투비, EXID, 러블리즈, 울랄라 세션, 마마무, 홍진영, 소년공화국, 사년, 손승연, 계범주, 와썹, 신미래 등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

lee1220@news1.kr



'국제시장' 끝없는 흥행몰이, 600만 고지 향해 간다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이 600만 고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1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국제시장'은 지난 31일 하루 무려 47만683명의 관객을 끌어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534만5812명이다.

'국제시장'의 500만 돌파 속도는 2012년 추석 극장가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킨 '광해, 왕이 된 남자'(누적 1232

만3408명)보다 3일 빠르고, 2013년 겨울 극장가에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7번방의 선물'(누적 1281만2123명)보다는 2일 빠른 것으로 앞으로의 흥행 추이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황정민은 '국제시장'을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이 시대 아버지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그려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lee1220@news1.kr



EXID 멤버 하니

엑시드의 멤버 하니가 반기면서 놀라는 모습. 무명 엑시드는 <위아래>라는 곡으로 일약 스타 걸그룹으로 도약했다. 이 곡은 잊혀져 가던 곡이었으나 한 카메라맨의 직캠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역주행을 거듭, 멜론 차트 1위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니는 자신을 찍어 스타로 만든 은인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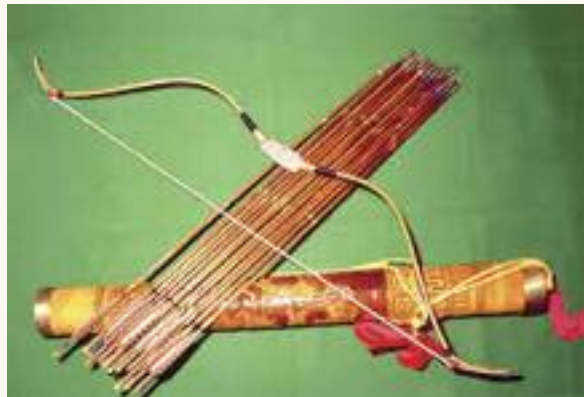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27)〉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 (6) : 맥궁(貉弓)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맥궁, 물소 뿔이 활의 중앙에 위치

지난주에 로마 군대가 훈족을 당해내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로마는 훈족이 가지고 있었던 말안장, 발등자를 비롯한 첨단 마구가 없었고, 훈족의 각궁(角弓) 성능이 로마 활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각궁(角弓)은 시위를 당기고 놓을 때 활이 휘는 모습이 특이해서 반곡궁(反曲弓) 또는 만곡궁으로도 부르고, 여러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복합궁으로도 부르는데 주 재료가 물소나 황소의 뿔이어서 각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뿔과 나무를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5개 부분에 마디를 연결해 이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개 크기가 작은 단궁(短弓)이라서 다루는데 편리한 이점이 있었다.

각궁은 훈족과 흉노만 사용하던 고유 무기가 아니었다.

선비, 오환 등 여타 북방 유목민들도 각궁은 전장에서 사용했던 표준 무기였다. 중국에서도 각궁을 사용했고 고구려는 당대 최고의 활 맥궁(貉弓)이 있었다.

중국 춘추시대 때 열자(列子)라는 책에 연각지궁(燕角之弓)이라는 각궁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대에 이미 각궁을 사용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연나라는 중국 동북부에 있는 나라로 고조선 고구려, 흉노와 이웃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각궁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구태여 연나라의 각궁만을 거론했던 것은 아직은 여타의 중국 여러 곳에 각궁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말로도 해석되어진다.

고구려 맥궁(각궁)에 관한 기록은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위지 동이전에는 고구려가 질이 좋은 맥궁이라는 활을 만들어 낸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제5대 모본왕(慕本王 AD 48-AD 53)에 관한 기록이 있다. 왕이 날로 포악함이 더하여 매양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로 베어 사람이 혹은 움직이든지 하면 죽이어서 용서치 아니했고, 신하로서 간하는 자가 있으면 만곡궁(각궁)을 당기어 쏘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1세기나 그 이전에 고구려에서 각궁을 사용한 듯 하다.

중국 남송의 학자 여조겸(呂祖謙)이 쓴 와유록(臥遊錄)에 한나라 현제 건안 10년에 고구려 10대 산상왕(AD 197-

AD 227)이 질 좋은 활을 공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역시 산상왕이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왕 손권에게 사신을 통해 각궁을 보냈다는 기록이 우부강표전(虞溥江表傳)에 기록되어 있다(AD 222). 고구려가 다른 나라 왕에게 예물로 보낼 수 있을만큼 고구려 각궁의 성능이 좋았다는 얘기가

화살은 대나무가 아니라 광대 싸리나무로 화살대를 만들었는데 일명 호시라고 불렀다. 삼국사기 기록에 미천왕(AD 300-AD 331) 31년에 5호 16국의 거두 후조(後趙) 왕 석륵에게 호시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 사용했던 활은 훈족의 활처럼 물소뿔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각궁이며 크기가 작은 단궁이라는 것이 이미 서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더 확실하게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벽화에는 활이 5마디로 구분되어 있고 활에 여러 줄무늬가 있어 한눈에도 단일재료로 만든 활이 아니고 복합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활 중에는 물소뿔 2개가 들어간 각궁을 최상품으로 쳤는데 무역을 통해 월남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활 한개를 만들기 위해 물소 한마리를 희생시켜야 했다.



맥궁으로 활을 쏘는 고구려 기사

훈족 복합궁의 사정거리가 200m였는데 물소뿔로 만든 고구려 각궁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간 듯 싶다.

현재 고구려 각궁을 모방한 대한민국 국궁의 사정거리가 400m이고 유효 사거리가 145~300m가 되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장궁의 사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

고구려에서는 값비싼 물소뿔이 없으면 황소뿔을 대신 사용했는데 활 한 개 만드는데 황소뿔 3개가 필요해서 삼단궁으로 불렀다. 활 한 개 만들기 위해 황소 2마리를 희생시켰다는 말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가 조선의 군사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물소뿔 무역을 차단한 적도 있다. 그만큼 물소뿔은 각궁의 성능을 제고 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였다.

세종대왕 때는 대마도주가 진상한 암수 물소 2마리를 날씨가 따뜻한 진해 지방에서 기르게 하여 13마리로 늘렸는데 한해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 모두 얼어 죽어버렸다.

1933년에 AD 350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전축분에서 고구려 활의 실물을 발굴하였는데 1600년 전에 만든 활의 뼈



발굴된 고구려 화살촉 실물

조각은 소의 갈비뼈로 판명되었다.

신라의 경우는 삼국사기에 진흥왕 19(AD 558)에 내마(奈麻)와 신득(身得)이라는 사람이 포궁(砲弓)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에 효성왕(AD 737~AD 742)이 그의 어진 신하 신충(信忠)을 활 중의 으뜸인 각궁(角弓)에 비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라가 각궁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예전에 중국도 각궁을 사용했지만 활이 중국 군사들의 표준병기가 아니고 칼과 창이 표준 병기였다. 훈족과 흉노는 활이 표준 병기였고 고구려 역시 활이, 특히 각궁이 표준 병기였다.

신라의 경우는 기록이 많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각궁을 사용했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고구려는 문헌의 기록뿐 아니라 고분벽화를 통해 각궁을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구려 기사가 마상에서 몸을 틀어 뒤쪽을 향해 활을 쏘는 배사 장면은 이태리 모리프타 아프리카 교회에 있는 그림에서 훈족 병사가 마상에서 몸을 돌려 뒤따르는 로마 병사에게 활을 쏘는 배사 장면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 병사들은 달리는 말에서 두 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활을 쏠 수 없었고, 더구나 몸을 돌려 활을 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활과 활쏘기에 관한 훈족과 고구려는 친연성이 있는 것을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다.



발굴 해낸 고구려 맥궁 뼈 부분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이제 불가능은 없다

{ 제한 없이 }
공간에 제한 없는
PC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 내내
온라인으로 수강가능!

{ 모두 인정 }
한국대학도
인정하고
미국대학도
인정하는
대학 교양학점 취득!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간제 등록
<http://time.sdu.ac.kr> · 82-2-2128-3232 · time@sdu.ac.kr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말, 말, 말, 말하기와 말쓰기!!!

우리는 세상과 마주하면 할수록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깨닫는다. 무엇이든 제자리에 제대로 있을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듯이 그 어떤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사고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니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이라는 것을 생각 없이 툭툭 내어놓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는가. 한해를 돌아보며 나 자신이 수없이 쏟아놓은 말들의 꾸러미는 과히 얼마나 될까 잠시 생각해 머문다. 그리고 그 중의 쓸 말과 쓰지 못할 말의 알갱이는 또 얼마.

얼마전 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과학자 왓슨의 얘기를 잠시 떠올려 본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비밀을 풀어내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의 과학자 제임스 왓슨. 그러나 이 메달을 최근 경매에 내놓았었다. 흑인 차별 발언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그는 생전에 노벨상 메달을 판 첫 수상자라는 불명예도 얻게 된 것이다. 지난 4일 뉴욕 경매에서 단 몇분만에 낙찰된 메달 가격은 475만 달러, 우리 돈 53억 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낙찰자가 "이 메달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계 50번째 러시아 재벌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아스널을 소유한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회장이었다. 우스마노프 회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점도 털어놓으며 과학자 왓슨이 암 치료 연구에 밑거름을 제공한 만큼 메달의 올바른 소유자라고 그 이유를 밝힌 것이다.

"뛰어난 과학자가 생활고에 쫓겨 메달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기 괴로웠다"는 그는 또 생각 없이 툭~ 뱉어낸 '실수의 말(암덩이) 한 마디'로 자신을 버리고 평생을 소외당한 채 살아온 초라한 한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교훈을 또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가 되었다.

반면, 온 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고 여전히 각 매체마다 헤드라인 뉴스거리(애깃거리)가 되고 있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더불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사건인지 다시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해지는 일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수없이

있어왔을 얘기고 그나마 이번 사건으로 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잠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람으로 남겨본다. 그것은 부단 그 어떤 사주들의 문제 뿐만이 아닌 적게는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말은 의사의 손에 쥔 매스와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멸절하게 살아 있는 생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그 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어찌 쉬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자신의 생각에서 걸러지지 않고 끄집어낸 말과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툭 뱉어진 말의 독소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말이 아닌 칼날 서린 말은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상처 자국을 남길 뿐인 까닭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 아닐까 싶다. 특별히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거나 사람들이 여럿 모인 단체에서는 더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말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그 안과 밖이 판이해

진 곳에서는 칼날보다도 더욱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무리 속에 당당하게 속한 그 '소속감'이란 삶의 활력소도 되거니와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에게는 소외된 자리로 밀어내주는 무서운 '무기 덩어리'가 되기도 한 까닭이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인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비밀을 풀어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의 과학자 제임스 왓슨의 흑인 비하의 발언으로 평생을 가슴앓이로 살았을 과학자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칠 만큼 화려했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큰 사건이기도 하다. 말의 힘과 언어의 능력 그것은 잘 하고 써야지 선부르게 잘 못 하고 쓰면 화를 당한다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전해주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더욱이 말에 대한 깊은 생각과 함께 바르고 제대로 된 말하기와 말쓰기에 노력을 해야겠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요즘 안부를 물으셨나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조선시대 옥봉이란 여인이 남긴 시 한편이다. 첫 구절이 한국유행가 뉘새를 풍긴다. 하지만 감칠맛 난다. '요즘 안부를 물으셨나요.' 새해 벽두에 보스톤코리아 독자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라.

'요즘 안부를 물으셨나요
달빛이 곱창에 깃들면 저의 한이 크답니다
꿈길을 걸어가도 만약 발자국이 남는다면
그대 문 앞 돌길에 반쯤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며칠 후면 소한小寒이다. 한국에선 제법 춥다는 날이다. 오히려 대한大寒보다 춥다 했던가. 대한이가 소한이네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했으니 말이다. 현대, 보스톤엔 동장군冬將軍이 진격을 망설이는 모양이다. 그러

니 보스톤은 봄날처럼 따뜻하다. 아니 춥지 않다는 말이 어울릴 게다. 겨울이 덜 추우면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다. '김장김치 다시 겠다.' 세월지나 보스톤에 사는 아들은 김치가 시진 말건, 춥지만 않다면 걱정과 불평은 커녕 마냥 감사한다. 올 한해는 겨울날씨 마냥 그저 춥지 않다면... 부질없는 기대인 줄 내가 왜 모르겠는가.

해마다 새해벽두에는 한 두자 말을 이끌어 낸다. 어느 해에는 '정靜' 이었고, 어느 해에는 '동動' 자였다. 재작년엔 근이불급勤而不急이었다. (이 말은 내가 작문한 것인데, 문법에 맞는지 그건 모른다. 그러니 묻지 마시라.) 내 나름 해석하자면, '부지런 해라.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참, 어느 해인가에는 '춥지 말자' 고도 했다. 말이 생똥맞다. 춥지 말자 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닐게다. 덩자고 일부러 한여름에 숨이불 뿜

어 쓸 요량도 아니다. 그저 마음만은 시리지 않기로 했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해 일년은 마냥 추웠다. 하긴 지난 몇 해 동안 이 순耳順이라 할거나, 이명耳明으로 할거나, 잠시 망설이기도 했다.

고리타분한 옛적 이야기를 또 들먹인다. 어느 해 정초正月初, 일년을 시작하는 날 아침녘이었다. 소한小寒 언저리 었을 게다. 지도교수님이 연구실로 들어섰다. 손에 작은 진로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각자 자기 커피머그를 들어라.' 열을 지은 몇 명의 연구원들이 선채로 황송히 술잔을 받았다. 새장안 물만큼 찜끔 따라 주셨다. 술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위թ에 도달하기전 食道 道 벽만 슬쩍 적시지 않았나 싶다. 그만큼 양은 적었으니 입맛만 버렸다. 성찬식 포도 주만큼만 주셨던 거다. 교수님이 한마디 불었다. '이 술은 이명주耳明酒'. 귀를 밝게

하는 술이라 했다. 그 날따라 지각한 친구가 있었다. 헬레벌떡 교수실 문을 노크했다. 한 잔 귀 맑음을 나눠 주십사 간청했다. 언어마시고 돌아온 그가 말했다. '하마터면 일년 내내 귀가 어두울뻔 했다.'

올해에 내 스스로 지어낸 말은 '방防보다 방放' 이다. (이 말도 우격다짐 내 작문이다.) 막기보다는 놓기로 했다. 움켜쥐고 지키려는 것 보다 차라리 다 내려 놓는 거다. 입은 막기로 했고, 귀는 내려놓고 풀어놓아 맑고 밝은 소리만 듣기로 한게다.

춥지 않은 새해를 맞는 당신. 이명耳明!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욥기 36:10)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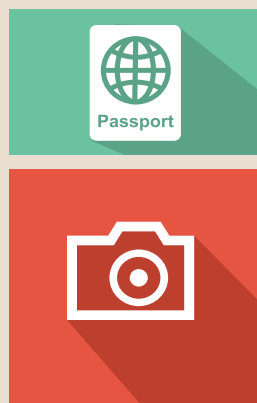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2 해방 후 무림武林의 대가(大家)들(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번에는 ‘무덕관’에 대해서 살펴 본다.
(.98)

무덕관武德館은 해방 직후 서울 용산역 부근의 운수부(교통부) 청사에서 황기黃琦에 의해 ‘운수부우회 당수도부’로 출발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1946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황기 관장은 1935년 남만주 철도국에 입사해서 그곳에서 국술을 수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황기의 무력武歷을 방증할 만한 사료가 없어서 일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용산의 운수부 청사를 사용했고 관원의 대부분이 철도국 직원들이어서 ‘철도국 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 수련생들은 관원 1번인 김운장을 비롯하여 홍종수, 최희석, 유화영, 남삼현, 김인석, 이복성, 황진태, 원용범, 정창영, 이강익 등으로 모두가 철도국 직원이었다. 그후 철도국을 통해 각 지방의 기차역 창고에 도장을 개관하면서 세력을 넓혀 나가 무덕관 하면 기차역이 연상될 정도였다. 무덕관의 승급심사 때는 청도관의 이원국 관장과 송무관의 노병직 관장이 왕래하면서 교분이 두터웠다. 하지만 때로는 단증과 급증 발급을 놓고 왕왕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고, 그로 인한지는 몰라도 무덕관과 청도관은 서로 라이벌관계를 유지하면서 초창기 무술을 발전시켰다. 황기는 1953년에 ‘대한당수도협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55년 서울 동자동 서울역 부근에 무덕관 중앙본관을 새로이 개관하면서 그 해 전국에 9개의 지관支館을 개관하였다. 또한 같은 해 한중 친선당수도 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무술을 중국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황기는 홀로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여 수련하면서 1960년에는 대한당수도협회를 ‘대한수박도회’로 개칭했다. 하지만 그의 야심찬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바탕으로 한 수박도의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공권력의 벽에 부딪히면서 좌절의 쓴맛을 본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모든 관館이 ‘대한태수도협회’로 통합되면서 ‘인무왕武王’이 이끌던 모든 ‘관’들은 해체되었다. 해체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체된 것이 아니라 단증을 통합적으로 일괄 발급하였지 수련상이나 내용면에서는 각 관의 전통을 유지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 정부에서 모든 관들을 하나의 협회로 통합하라고 지시를 하였을 때 황기는 반기를 들었다. 결국 무덕관 내분이 일어나는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1965년 3월 김영택과 홍종수가 주축

이 되어 황기를 무덕관에서 제명하고 통합의 길을 걸었다. 그 후 이강익이 관장직을 맡았으나 얼마가지 않아 물러나고 그의 뒤를 이어 홍종수가 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오세준이 관장직을 이어갔다. 무덕관은 5대 기간도장 중 관세館勢가 가장 컸다.

해방 후 민간 도장의 5대 문파는 청도관, 무덕관, 지도관(조선 연무관), 창무관(YMCA 권법부), 송무관 등이다. 이 5대 문파의 관장 중 실종된 전상섭, 윤병인을 제외하고, 청도관의 초대 관장 이원국, 2대 관장 손덕성, 무덕관의 초대 관장 황기, 창무관의 2대 관장 이남석, 송무관의 초대 관장 노병직 등 이른바 ‘관’의 ‘원조’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여기에다 한국 전쟁 후 만들어진 군대 도장 오도관의 초대 관장 최흥희와 역시 오도관의 관장을 역임한 남태희도 포함된다.(최흥희는 캐나다로 이민하였다) 우리나라 태권도의 뿌리들이 사실은 미국에 모두 옮겨져 있는 셈이며, 미국에서 굳건히 내린 뿌리는 후일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다음은 ‘지도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이 부분 역시 ‘태권도 현대사-강원식, 이경명 공저’를 참고하였다). 지도관

智道館은 전상섭이 1946년 3월 3일 ‘조선연무관朝鮮研武館 공수도부’로 출발하였다. 전상섭은 청소년 시절 유도를 수련하였다. 그리고 일본 유학시절 가라데를 배웠다. 1943년 귀국한 그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유도학교 조선연무관에서 유도와 가라데를 가르쳤다. 그 후 해방이 되자 그는 곧 ‘조선연무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수련생을 모집하였다.

해방직후 조선연무관은 무급에서 8급까지 상, 중, 하로 나누어 관원들을 지도했고 관원은 입관일만을 기준하지 않고 ‘급級’도 고려하였다.

전상섭은 호리호리한 체격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지만 지성인답게 늘 정장차림으로 다녔다. 그 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납북)이 되었고 ‘조선연무관’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래서 당시 지도 사범으로 있던 윤쾌병尹快炳이 이종우와 함께 명칭을 ‘지혜로운 길’을 의미하는 ‘지도관智道館’으로 관명을 개칭하였다.

98) 참고 문헌: 태권도 현대사(강원식, 이경명 공저, 보경문화사, 1999), 태권도지도이론(김대식, 김광성 공저, 나남, 1987), 태권도의 역사-네이버 지식iN.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2015년 주택시장 복병과 희망

지난 2년간 보스톤 주택시장은 상당 부분 회복되었지만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전통적인 시장 비수기인 겨울철과 겹치면서 일단 조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량 차압사태로 시작된 주택시장의 위기가 시작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잃어버린 주택소유자가 500만명이 나 되니 이제는 주택시장 위기는 종결되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 또 최근 나오는 주택관련 각종지표들도 주택시장이 현저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차압율, 매달 낮아지고 있는 실업율, 기업들의 수익률 상승 등 모두 미국경제 회복의 청신호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복병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2009~2013년 사이 주택 차압위기에 몰렸던 주택소유주들에게 주어졌던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을 통해 일정기간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던 융자재조정 혜택자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이 중 융자재조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에 혜택을 받았던 주택소유자들이 혜택기간인 5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이다. 숫자적으로 지난 5년간 융자재조정 혜택 받은 주택소유주 90만명 중 약 20만명의 주택소유주가 내년부터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페이먼트 상승으로 인해 이들이 다시 주택시장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거리에서 느끼는 바닥경기는 아직도 냉기가 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자율 상승으로 매달 몇백달러의 주택 페이먼트 상승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많은 한인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스포츠비즈니스 경기는 현재 주류사회와 전혀 관계없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그간 이러한 혜택을 누렸던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집 지키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융자재조정 혜택 종료위기와 함께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2차 융자라고 불리는 ‘Home Equity Line of Credit’ 부분이다. 특히 주택 거품이 절정이었던 2005~2007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로 꺼내 쓴 에퀴티 론이 새롭게 문제발생 소지

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ATM’이라고 불리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여 썼던 에퀴티론이 이제는 이자만 내던 것에서 원금과 함께 페이먼트를 내야 하거나 만기 도래로 인해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의 추가 월페이먼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또다른 복병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러 불확실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회복세의 주택시장의 대체를 바꿀 수는 없어 보인다. 또 최근 수년간 더욱 뚜렷이 나타난 Massachusetts 주택시장의 지역화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 등의 변수가 많은 보스톤에는 지역에 따라 지역 심화도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최근 미국 주택시장, 특히 보스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들은 미국 전체 주택경기 지수와 전혀 상관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중반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상승을 앞두고 이자가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로컬 대기 바이어들도 내년부터 다시 본격

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 보스톤에 주택시장이 계속 회복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패니매, 프레디맥 등 국책기관들이 잇따라 최저다운페이 금액을 3.5%까지 내리면서 보스톤에는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더불어 다운페이 부족으로 인해 주택구입을 미루었던 첫 주택구입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희망사항
 홀로 된다는 것
 숙녀에게
 미워서 미워질때
 지금 이대로
 사랑 그놈
 비와 당신
 로라
 그대에게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구름 닮은 친구
 그대 내게 다시
 그대만의 모습
 저 하늘을 날아서
 가장 슬픈날의 왈츠
 너에게로 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내게 줄 수 있는건 오직 사랑 뿐

싱글맘을 위한 희망나눔

변진섭 콘서트

5인조 하영석 밴드 pav M&C

2015년
1월15일
 목요일 오후8시

티켓

\$30, \$50,
 \$70, \$90,
 VIP\$120
 (가수와 사진촬영 가능)

판매처

교차로신문사
 718-460-0114
 단체티켓 문의 환영

한양마트

티켓마스터
 www.ticketmaster.com

뉴저지 버겐팩
 Bergen Performing Art Center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크리스마스 & 새해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 2014년 12월31일까지



교차로에서 여섯장 이상 구매시 **20%** 할인
 총구매금액의



셔틀버스 운행 (뉴욕 플러싱)
 선착순 100명 왕복요금 \$20
 1차 출발: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2차 출발: 오후 6시20분 공영주차장 앞
 **본 버스 티켓은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직행선이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Happy New Year(행복한 새해 되세요)’라는 기원이 가득찬 새해의 한 주이다. 두 개의 다른 개념의 새해인사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미국인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 ‘복’이 오면 ‘행복’이 저절로 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노력 없이 받는 ‘복’은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로, 11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남성이 결국 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저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수배자 신세로 3년 넘게 찹질방을 전전하다 지난 10월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받은 당첨금은 242억 원, 세금을 떼고 189억 원이었다.

복권에 당첨되기 전 그의 직업은 주식 투자자였다. 주식 투자는 성공이 매우 어렵다. 대략 1%의 성공, 백 명 중 한 명이 이기는 게임이다.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해야 한다. 이익(profit), 위험(risk), 자신의 능력(capability)과 선호(preference)를 다른 사업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그는 과연 어떤 주주 투자자였을까? 8년만에 189억원을 탕진하고 사기꾼으로 변한 그의 막장을 볼 때, 그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불나방 같은 투자자로 위험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투자능력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보지 않고 주식 투자가 정말로 좋아서라기보다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투자자일 확률이 크다. 성실한 노력보다 운을 노렸던 그의 불성실한 삶의 태도, 큰 행운으로 굴러온 ‘돈 복’도 차 버리게 했고, 더 큰 ‘화’를 불렀고 더 불행해지게 되었다.

‘복’을 받으면, ‘행복’해 질 확률이 훨씬 크다. 하지만 복이 없어도 ‘늘’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성실이다. 성실하게 정

직하게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는 ‘화’가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행운이 오게 되어 있다. 역경에 처해있을 때 자신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회로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반드시 ‘행’하고 해가 뜬다. 이렇게 한번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하면 다시 힘든 일이 닥쳐도 헤쳐나간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이 온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연설은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그가 말한 ‘STAY HUNGRY, STAY FOOLISH!’는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고, 그 불행했던 순간을 어떻게 행운으로 연결시켰는가를 알게 해준다.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애플은 10년만에 4000명 이상을 고용한 20억 달러 가치의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동업자 워즈와 함께 그의 야심작 ‘맥켄토시’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애플은 그를 해고시키고, 그들이 유능하다 생각한 사람으로 대체했다. 그는 매우 공개적으로 쫓김을 당했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모든 일을 망친 공공의 실패자가 되어, 실리콘 벨리에서 달아날 생각마저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은 그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사회적인 성공의 요구와 기대의 압박에서 벗어나니 더욱 커지는 그의 창의성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 후 5년간 넥스트란 회사와 픽사란 또 다른 회사를 창업했고, 세계 최초 컴퓨터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애플은 넥스트를 사들였고 애플로 돌아왔다. 그는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인생이 불현듯이 뒤통수를

칠 때 자신의 신념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스티브 잡스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매일 매일의 습관이 있었다. 그는 17세 때 “하루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의인의 길에서 있게 될 것이다”라는 글에 감명을 받았고, 그 후 5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죽음 앞에서는 진실된 것,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그의 좋은 습관은 그에게 비록, 짧고 굵은 생이었어도 그에게 큰 성공과 행복을 가져왔다.

암 투병 중 쓴 이해인 수녀의 시는 스티브 잡스의 좋은 습관과 닮은 꼴이 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 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생’의 어려운 시련과 고비를 겪을 때,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는 가장 필요한 ‘손잡이’가 되어 준다.

좋은 습관 형성은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7 habits)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급한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 박사는 “일시적인 것을 얻으려면 행동을 바꾸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성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라 하여 바꿀 수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코비는

“긍정적으로 사람의 습관을 변화시키면 성품도 바꿀 수 있다”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습관의 변화를 통해 성품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품(Character)이란 무엇인가? 우선, 성품과 성격의 차이를 살펴본다. 사람은 저마다의 ‘기질(Nature)’; 내성적, 외향적,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과 같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태어난다. ‘성격(Personality)’은 타고난 기질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성격’은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지만, 어떤 성격을 갖느냐는 ‘사회’라는 테두리 내에서 어떤 환경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성격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술, 처세술로 외적인 성격이 좋게 보이려 ‘가면’을 쓸 수 있다. 성격은 겉에 드러나는 기질이다.

성품은 내적이다. ‘근면, 성실, 정직, 겸손, 언행일치, 개방적 태도,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소박, 원칙’이라는 ‘아름다운 특성’으로 채워져 있다. 김기옥(국가원로회 위원)은 동작신문 칼럼을 통해 ‘행복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2013). “기질이나 성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성품’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 냅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질과 성격이 ‘좋은 성품’과 만나면 ‘빛’이 나는 행운이 온다.

좋은 성품은 좋은 습관을 만든다. 좋은 습관은 행복을 향한 직행길이다. ‘행복’이 가득한 2015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좋은 성품과 습관을 갖는 방법’을 다음 칼럼들을 통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식제 라이네이트 80만원 ↓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늑하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 만원	스페셜 힐링 스킴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 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 만원
전신 울라스틱 이모마 케어 - 이모마 전신케어 + 감리보습케어 32만원 → 26 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감리보습케어 38만원 → 30 만원	나이가 들면 것은 지울 수 없지만 비밀스럽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피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춰주세요.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해탈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합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메쉬 리프트 4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해외 의료 사업 팀장 김수남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2) 미국은 신용사회

“미국은 신용사회”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언급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엔 거리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credit score)과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상관관계를 월스트리트(W.S.J) 재정신문에서 다루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5대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개인의 신용등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불량한 개인은 등급이 월등한 사람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65% 더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는 지역에 따라 더욱 커집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워싱턴 지역은 신용등급의 차이로 126%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전 기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등이 전혀 없어도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두(2)배 이상 내야만 합니다. 신용등급이 엇비슷한 경우에도 보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760과 620에 있는 사람의 보험료의 차이는 24%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집 보험료에도 신용등급따라 보험료가 91%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살 남아아이들의 자동차 사고 횟수는 분명히 50대 남자와 비교해서 훨씬 높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있기에 보험회사도 그만큼 위험성을 선택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신용등급 보고서 확인(Check your credit reports):

‘신용등급 보고서’ 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기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빚(debt)을 전부 갚았는데 빚이 남아 있다고 잘못 기재되면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잘못이 확인되면 관계된 모든 회사와 접촉하여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용등급을 단기간 내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매달 정해진 기간에 갚음(Pay

your bills on time):

신용등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날짜에 갚았는지를 볼 수 있는 신용기록(credit history)입니다. 신용등급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늦지 않고 제때에 빌(bill)을 보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깜박 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때는 자동으로 갚는 방법(automatic payments)을 형성해서 정해진 날짜에 은행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빚은 가능한 한 적게(Keep balance low):

신용카드 한도액이 \$10,000이고 매달 외상 액수를 갚으면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용회사는 카드 한도액과 쓴 빚을 함께 계산합니다. 한도액 \$10,000에 대해서 \$1,000을 사용하면 10%이며 \$2,000을 사용하면

20%입니다. 이것을 사용비율(utilization ratio)이라고 하며 이 숫자가 적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아집니다. 신용등급 회사에서는 이 비율을 한 자리 숫자, 즉 1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용등급 향상(Build up credit history):

일부 사람은 빚이 있는 것이 부담되어 현금으로 물건을 삽니다. 건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을 향상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회사는 자그마한 돈이라도 제때에 갚아나가고 있는 기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자 내는 것을 안내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그마한 이자에서 이익을 보기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더 많은 돈을 세이브(save)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오바마케어와 세금

미가입자에게는 벌금부과/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

2010년 제정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세금이야기입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 반대로 가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
-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징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의료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lawfully present) 중에서 가입면제자(exemptions-예를 들면 저소득자 등)를 제외한 남녀 노소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bona fide foreign resident/330일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가입의무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Shared responsibility payment)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월마다 계산되며, 그 금액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시 납

부할 세금에 가산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벌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①소득기준 금액과 ②정액기준(1인당) 중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은 보험시장(Insurance Marketplace)에서 거래되는 동 플랜(bronze level plan)의 평균보험료(2014년의 경우 1인당 연 \$2,448, 월 \$20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기준	정액기준
2014년	기준초과금액의 1%	1인당 \$95 (미성년자 \$45.5) 가구당 최대 \$285
2015년		1인당 \$325 (미성년자 \$162.5) 가구당 최대 \$975
2016년	2.5%	1인당 \$695 (미성년자 \$347.5) 가구당 최대 \$2,085
2017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조정	

여기서 소득금액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초과금액’이란 세금신고의무 기준금액(tax return filing threshold)을 초과한 가구당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정액기준으로 계산한 벌금은 가구당 최대 ‘성인3명의 벌금액(=성인1인당 금액 X 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자에 대한 세금혜택(Premium Tax Credit)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반대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세금혜택을 줍니다.

누가 세금혜택을 받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보험은 반드시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관할하는 의료보험시장(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시장(Marketplace)에 속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의 100%에서 400%사이인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넘는 사람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적용되는 4인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은 \$23,550입니다. 따라서 4인가족의 가구 소득이 \$23,550(100%)이상 \$94,200(400%)이하인 납세자는 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한 부부는 세금신고시 반드시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해야 하며, 넷째;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금혜택을 받나?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월 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중 일부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미리 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Advance payment)이고,

다른 하나는 매월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나중에 세금신고시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Marketplace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김한국씨가 2014년에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2,400이라면, 김한국씨는 매월 \$200(=\$2,400÷12개월)을 미리 받아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고(Advance payment), 아니면 2014년도분 세금신고시 \$2,400을 한꺼번에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 가입시 예상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금액을 기준삼아 매월 선지급 받은 금액(Advance payment)이 실제의 금액과 차이가 나면 세금신고 시 이를 정산하여 많이 받은 금액은 납부하고 적게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14년 의료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각 가입자는 2015년 1월 31일까지 Marketplace로부터 이 서식을 받게 됩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하버드 입학 전략 중 가장 주의깊게 살펴보는 점: 개인의 성향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지원자의 아카데믹, 교외활동 등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의 성향도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개인의 성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추천서

추천서는 학생의 교외 활동과 성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말하기보다 학생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추천서 내용이 중요하다. 추천서는 칼리지 카운셀러, 두 명의 교과목 선생님들로부터 받는다. 교과목 선생님은 가능하면 문과 관련 한 분과 이과 관련 선생님 한 분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게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 명 모두 이과 또는 문과 선생님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버드 지원자라면 모든 선생님들이 요청만 하면 기꺼이 추천서를 잘 써줄 수 있는 정도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 허가를 받지, 성적은 좋은데 선생님들에 대한 변명만 하는 학생들은 입학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 하버드는 학생들이 보낸 서류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 점은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하버드 공동체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버드는 칼리지 카운셀러 포함 5개 이상의 추천서를 보내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외부 추천서로서는 재능분야(아트, 음악), 리서치와 인턴십 멘토, 참여한 섬머프로그램을 통한 추

천서, 스포츠 코치등의 추천서들 중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추천인에게 요청한다. 물론 학생이 Defer,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면 새로운 선생님 추천서나 기존에 써준 선생님의로부터 업데이트된 추천서를 보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추천서는 11학년 때 수업을 들은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적어도 11학년 3월 정도에 미리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선생님들과 미팅을 통해 학생의 열정과 흥미를 보여주는게 좋다.

둘째: 에세이

에세이는 학생이 원서에는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상황, 열정, 그리고 흥미를 표현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대학원서에 필요한 에세이는 콘테스트도 아니며, 자신의 성적에 대한 변명도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특이한(Unique) 에세이는 오히려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진솔한 경험을 자신의 단어로 표현한 것을 읽고 싶어하지, 어려운 SAT 단어를 사용한 표현을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물론 극적인 요소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많이 강조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극적인 요소는 오히려 자연스러움과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버드의 에세이는 커먼에세이, 액티비티 관련 120자 에세이, 그리고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에세이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생활했고 공헌했는지를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이기에 에세이 역시 이점을 부각시켜 쓰면 좋을 듯하다.

셋째: 인터뷰

인터뷰는 지원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터뷰 전 친구, 부모님등과 가상 인터뷰를 해본다. 가상 인터뷰 후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다시 한 번 인터뷰를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인터뷰는 대부분 졸업생들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인터뷰 담당자가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특별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분과 인터뷰할지를 아는 것은 예상 질문을 예측하기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인터뷰 후에는 이메일로 댕큐노트를 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인터뷰 후 바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다. 최근 하버드 인터뷰 담당자들이 주로 물어보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Tell me about yourself.
2. Why do you want to attend Harvard?
3. What do you like most/least about your high school?
4. What would you add to Harvard and our student body?
5. How have you grown both personally

- and academically during high school?
6. Why should we accept you?
7. What do you envision yourself doing professionally after college?
8. Tell me about your extracurricular activities.
9.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in high school? Why?
10. Who is your favorite teacher? Why?
11. What questions do you have?

일반적으로 하버드 인터뷰는 학생들의 아카데믹 라이프와 흥미, 칼리지와 미래 목표, 개인의 흥미, 그리고 교외활동 등을 주로 질문한다. 좋은 인터뷰는 미리 만들고 준비한 답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있는 학생의 보이스가 많이 담긴 것이 가장 좋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그 해 지원한 학생들의 성향과 대학이 추구한 학생 모집 정책이 어떤지에 따라 입학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근 하버드는 소수민족, 소외계층, 재정 보조, 스포츠 리쿠르트, 레가시(Legacy)등의 요소가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조기지원에서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 즉 하버드가 교육시키면 앞으로 세계에 큰 공헌을 할 학생들 위주로 뽑은 경향이 있다. 이는 하버드 입학을 더욱 힘들게 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Drexel University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 중심의 대학구(區) University City에 위치한 사립 종합대학교다. 사실 필라델피아의 University City는 아이비리그 최고 명문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유펜: University of Pennsylvania) 때문에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유펜에서도 보로 고작 10분 거리에 US News 대학 랭킹 100위 안에 겨우 드는 드렉셀 대학교가 있다. 드렉셀 대학교의 올해 순위는 비록 공동 95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약 15년 사이에 최신식 설비 투자를 하는 등 약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몇 년째 "떠오르는 신흥 대학 (Up-and-Coming Schools)" 10위권 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기술 연구원이자 박물관인 Academy of Natural Science를 2011년에 인수하는 등 신흥 연구 대학으로서 점점 더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공 중에서는 Engineering과 Business,

유명하지 않은 명문 대학교 (3)

Public Health 부문이 특히 강세고, 학문(Education)과 실무(Application)의 조화를 강조한 Drexel 만의 Cooperative Education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명성이 높다. 드렉셀 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Co-op program은 전체 학생 중 98%가 재학 생활 중에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을 통해 되며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2,800 곳이 넘으며 Google 이 나 Microsoft, Disney, Sony, Warner Brothers 등의 다국적 대기업과도 연이 닿아 있다. "Ultimate Internship"이라고도 불리는 이 Co-op을 통해 경험은 물론, 한 학기 동안 일을 하면서 약 \$16,000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학비에 도움이 되는데다가, 최대 3회, 모두 다른 분야,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볼 수 있고 졸업 후에는 큰 확률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을 수도 있다.

Haverford College

유펜(UPenn)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또 하나의 명문 교양 대학(Liberal Arts College)이다. 퀘이커(Quakers)들이 처음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된 학생 규정(Honor Code)를 채택해, 신뢰를 중시하고 있다.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남학생 21명, 교수진 7명의 작은 학교였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총 학생 수가 300명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명문 여대인 Bryn Mawr Colleged와 자매 결연을 맺으며 상호 협력 하에 학업과 연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1980년대에는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US News & World Report가 매긴 Liberal Arts College 순위 8위에 랭크 되어있는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1986년엔 전통적으로 인연이 깊은 Bryn Mawr College와 또 다른 명문 여대인 Swarthmore College까지 세 대학 연합(Tri-College Consortium)을 구성해 작은 학교에 서만 누릴 수 있는 학생의 자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의 강의를 다른 학교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Haverford College는 작은 Liberal Arts College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학원과 대형 연구시설의 부재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연구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도 유명하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는 Quaker Consortium 학업 연합을 맺고 있어, Haverford의 학생들은 UPenn Wharton 경영 대학의 수업을 언제든 들을 수 있고, 4+1 Program을 통해서 5년 안에 이학사(Bachelor of Science)와 석사(Master's)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학부에 공학 과정이 없는 단점 극복을 위해 Cal-Tech과 함께하는 3-2 Engineering Program

을 통해 Haverford의 학사 학위와 CalTech의 이학사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Claremont McKenna College, Georgetown University, 중국의 Zhejiang University (저장 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이런 활발한 학업 지원을 통해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조사한 '가장 많은 과학/공학 박사를 배출하는 대학' 13위 (예일 17위, 스탠포드 19위, 존스홉킨스 20위 보다 상위), 경제지 Forbes가 조사한 '가장 많은 창업가를 배출하는 대학' 10위 (예일 11위, 브라운 13위 보다 상위) 등에 랭크 되기도 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 30명, 로즈 장학생(Rhodes Scholar) 20명, 노벨상 수상자 3명, 풀리처상 수상자 6명 등을 배출하고, 학부를 졸업해 의대, 로스쿨, 경영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 중 95%가 합격을 하는 등 총 학생 수 1,200 여 명의 작은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기록을 자랑한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이경해 부동산을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5년에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사업주들께서 번성하시고
활기 찬 한 해가 되시고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더욱 발전하는 이경해 부동산으로 2015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경해 드림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월Winter Break Program

기간: 2.14(토)~22(일)(9일간)
3.14일 SAT시험을 대비한 집중반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5일, W:2일, Math:1일)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5월AP, the national Spanish & Latin exam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